



Korean Veterans

60年史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03-2012





제2편

테마별 역사

1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활동

전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환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미동맹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6·25 전쟁 초기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중 평시(정전 시) 작전통제권이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전환됐다.

작전통제권 변천 과정

일자	주요 내용
1950.7.14	이승만 대통령, 국군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
1954.11.17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부여
1978.11.7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작전통제권을 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
1994.12.1	한국 합참의장에게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
2006.9.16	한미 정상회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하기로 합의
2007.2.23	한미 국방부장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2012.4.17) 합의
2007.6.28	한미 '전략적 전환 계획' 합의
2010.6.26	한미 정상회담,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 합의
2010.10.8	한미 '전략동맹 2015' 합의
2013.10.2	한미 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시기 재검토에 합의
2014.4.25	청와대 한미정상회담에서 재연기 합의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7년 2월 2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2012년 4월 17일부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향군은 이러한 노 정부의 정책을 한반도 안보상황과 군의 대응능력을 고려한 전략적·이성적 접근이 아닌, ‘자주’와 ‘주권’을 앞세운 정치적·감정적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향군은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결정한 후 전작권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무력 도발 야욕, 즉 전쟁을 억제하는 생존권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전작권 환수 반대를 위한 피눈물 나는 노력을 전개해 왔다.

가. 1차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투쟁에서 연기 합의까지

- 2006. 8. 2 : 국방장관 간담회, 여야 당대표 방문 입장 전달
- 2006. 9. 2 :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시청 앞 국민대회(20만 명)
- ※ 전 국방 총수, 경찰 총수, 전 외교장관, 대사, 지식인 등 시국선언 파급
- 정부 국민 여론 무시, 전시 작통권 환수 한·미 합의 결정(10. 20)
- 2006. 9. 29 : 1000만 명 서명운동 돌입(9. 12, 500만 서명 확대)
- 2006. 10. 9~21 : 서울 광화문 시청 앞 촛불기도회(연 인원 5만 명)
- 2006. 10. 8 : 각급회 ‘향군의 날 행사’ 시 궐기대회 병행
- 2007. 2. 21 : 1000만 명 서명운동 중간 보고 기자회견(프레스센터)

- 2007. 6. 25 : 서명 우수회, 단체, 개인 포상(장충체육관)
- 2008. 4. 4 : 서명 추진 경과 보고(국방회관)
- 2009. 2. 17 : 통합 방위 중앙회의 시 건의(청와대)
- 2009. 4. 24 : 향군원로와 미(美) 대사, CFC사령관 간담회(미 대사관저)
- 2009. 6. 4 : 1000만 명 서명 국민 보고대회(프레스센터)
- 2009. 10. 24 : 「전시 작전통제권, 그것은 생존의 문제다」 기고(조선일보)
- 2009. 11 : 박세환 회장 방미, 미 정계 인사와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유보 논의, 오바마 미(美) 대통령에게 친서 전달 및 찰스 랭글 하원의원, 에릭 신세끼 보훈성장관 등 만나 안보 외교 활동
- 2010. 1. 21 : 「국방장관의 전작권 전환 연기 의사 표명 적극 지지」(향군 성명)
- 2010. 3. 16 : 「한미연합사 해체, 올해 안에 연기해야」(조선일보)
- 2010. 4. 19 : 「전작권 전환 연기 촉구」 향군 전국 동시 특별강연회 개최
- 2010. 4. 21 : 「국가안보체제 핵심 축은 한미연합사」(문화일보)
- 2010. 5. 28 :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 명 달성 국민 보고 광고(5대 일간지)
- 2010. 6. 25 :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를 매듭지어줄 것 호소」(향군 성명)

이와 같이 향군은 애국안보 보수단체들과 함께 1000만 명 서명추진본부를 결성하고, 전작권 전환 반대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을 비롯하여 국민 궐기대회, 언론 활동 등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박세환 회장은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하여 전작권 전환 반대의 당위성과 미국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또한 찰스 랭글 하원의원, 팔레오 마바예가 아·태외교위원장, 에릭 신세끼 미 보훈부장관, 덴 버튼 미 공화당 외교분과 간사, 존 머피 전 하원의원 등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등 한미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전작권 전환 반대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향군이 이러한 투쟁을 강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0년 6월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



로 3년 7개월 여 연기하기로 합의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이날 양국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를 이룬 것은 박세환 회장을 비롯한 향군회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환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피눈물 나는 노력들을 강행해 온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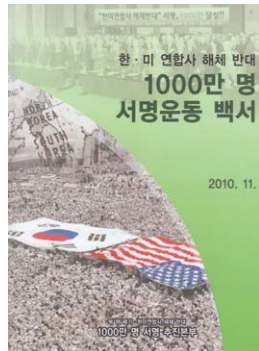
이에 향군은 '전작권 전환 연기' 성과에 대해 기뻐하며, 2010년 6월 28일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2010년 7월 15일 이에 대한 감사 서한을 미 오바마 대통령과 게이트 장관에게 발송했다.

또한 2011년 1월 10일 천만 명 서명(향군 725만 명, 시민단체 282만명 등 총 1007만 명) 백서 1,000권을 제작하여 다음과 같이 배부하였다.

배부처	기관/단체	본부/산하업체	시·도회	시·군·구회	참전/진목단체	보관용	계
부수	500	68	40	222	70	100	1,000

나. 2차 전작권 전환 재연기 활동 : 2012.11.13~현재

- 2012. 11. 13 : 안보자문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및 연합사 해체 재연기 논의
- 2012. 11. 28 :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관련 결의문 전달, 박근혜·문재인 후보 당사 방문
- 2013. 1. 23 : 「전작권, 자존심 아닌 생존 문제... 이양 재연기 추진」(조선일보)
- 2013. 2. 22 : 「한미연합사가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문화일보)
- 2013. 3. 20 : 박세환 회장 군원로와 대담, 「5월 정상회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하라」(조선일보)
- 2013. 4. 27 : 「북 도발 억지, 최상책은 한미연합사」(조선일보)
- 2013. 5. 2 :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 재연기 촉구 국민대회」(향군 성명) *서울역 광장, 3,800여 명
- 2013. 5. 7 :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 논의
- 2013. 7. 18 :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추진,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성명)
- 2013. 9. 30 : 「한미동맹 강화 촉구 및 중복세력 척결 국민대회」 *서울역 광장, 4,000여 명
- 2013. 10. 2 : 제45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조건 논의
- 2014. 1. 6 : 「북 도발 가능성 고조·전작권 전환 시기 못 박지 말자」(국방일보 기고)
- 2014. 4. 16 : 「전작권 재연기, 오바마 방한 때 결론 내라」(조선일보 기고)
- 2014. 4. 28 : 「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 환영」(조선일보 등 광고성명)



위와 같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2012년 4월 17일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향군이 전작권 문제를 생존을 좌우할 최우선 안보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국민여론을 선도한 결과로 2015년 12월 1일로 마침내 연기됐다.

전작권 전환이 2015년 12월로 연기된 후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도래했다. 이에 향군은 2012년 말부터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위해 또 다시 험난한 투쟁의 길로 들어섰다.

박세환 회장은 2013년 새해 벽두부터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작권 환수는 자존심이 아닌 생존 문제라며 이양 재연기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북한의 오판을 막는 최상의 방책은 한미연합사 존속이라며 핵을 보유하려는 북한으로서도 한미연합사를 직접 상대하기는 벽찬 전력임을 잘 알고 있기에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5월, 향군회원과 애국시민 등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역 광장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및 전작권 전환 재연기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전작권과 한미연합사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향군의 노력과 바람에 빛이 보였다. 2013년 7월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논의한다는 발표에, 향군은 즉각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 양국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그리고 정전 60주년을 맞은 2013년 7월 27일 박세환 회장은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전작권 환수 유보를 재차 촉구했다.

이후 2013년 10월 2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 능력을 고려해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담보하는 전작권과 한미연합사 유지는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필수적이다.

다행히 2014년 4월 한미정상은 청와대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합의하였고,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인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하였다.

어쨌든 전작권 전환 재연기 추진은 아직 진행형이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 이유는 우리 향군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 향군이 독립운동가 정신으로 1차 전작권 연기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듯이, 2차 전작권 환수 재연기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2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및 개정 촉구

국가 보안법은 1960년 6월에 제정된 이래 다음과 같은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다.

- 전문개정 80. 12. 31 : 법률 제3318호
- 일부개정 87. 12. 4 : 법률 제3993호(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91. 5. 31 : 법률 제4373호
- 일부개정 94. 1. 5 : 법률 제4704호(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97. 1. 13 : 법률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 일부개정 97. 12. 13 :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2011. 9. 15 : 법률 제11042호(2012.7.1 시행)

이와 같이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중복활동 단체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강제 해산이나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한 촉구 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연대는 이러한 국보법마저 폐지해야 한다며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국민연대는 2004년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해'로 정하고 국보법 폐지 100만 인(人) 청원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에 향군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와 개정 촉구 활동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가. 국보법 폐지 반대를 위한 향군 대응활동

- 2004. 8. 10~12 : 주요 일간지 성명·광고, 국보법 폐지 반대 향군 입장 전 국회의원, 원로·정책자문위원, 친목단체장에게 회장 서신으로 발송
- 2004. 8. 20~10. 31 : 대국민 홍보 1000만 명 서명운동 전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전단 10만 매 제작 배부
- 2004. 8. 17 : 청와대 참모진과 대화, 향군 입장 천명 국보법 폐지 불가 입장 천명 후 향군원로의 의견을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달 요구
- 사이버 대응활동, 코나스 통해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애국 네티즌(20,000명) 관련 단체, 국회의원 홈페이지 공격, 사이버 시위
- 2004. 9. 23(9월 국회 개원 전후) : 향군 주관 좌우익 대토론회
- 2004. 8. 15~ 12. 31 : 전국 현수막 게시 홍보
- 2004. 9. 8 : '아침이슬' 국회의원과 향군원로위원 간담회
- 2004. 9. 9 : 자유민주주의 수호 비상시국선언·기자회견(프레스센터)

- 2004. 8. 25 향군원로·성우회, 국회 향의 방문(향군원로·성우회)
- 서울 동작구회, 동작구 열린우리당 향의 방문
- 2004. 10. 8 대규모 규탄·결기대회, 향군의 날 행사시 병행 추진
- 2004. 11. 16~12. 10 국보법 수호 가두집회 및 도보 순례
※ 집회: KBS 앞, 도보 순례: 구 한나라당 당사 → 국회 앞 → 여의2교 → 열린우리당
- 2005. 2. 1 국가보안법 수호 간담회(향군회관, 향군 임직원 44명)

이러한 향군의 국보법 폐지 반대를 위한 활동 결과 2011년 9월 15일 법률 제11042호에 의거 2012년 7월 1일부터 일부 개정된 법률안이 현행 국가보안법이다.

그러나 현행 국가보안법 역시 1990년 이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난 한총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5개 단체가 아직도 해체되지 않고 이적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데는 기존의 법으로는 중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강제 해산이나 법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맹점이 있으므로, 향군은 다음과 같은 국보법 개정 촉구를 위한 향군 대응활동을 전개해 왔다.

나. 국보법 개정 촉구를 위한 향군 대응활동

- 2011. 6. 15 / 2012. 9. 5 : 국가보안법 개정 관련 관련 국회의원 면담
- 2011. 9. 5 : 국가보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서명지 전달
- 2012. 8. 1 :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성명 발표
- 2012. 8. 14 : 국회 앞 기자회견(향군회장단 등 300여 명)
- 2012. 9. 7~11월 : 국가보안법 개정 촉구 시·도회별 기자회견
- 2012. 10월~ : 온·오프라인 2차 서명운동 전개
※ 국민 서명운동 전개 (2011.4~2013.9.30)
- 코나스(온라인 서명) 64,601명,
- 오프라인 서명 262,117명(접수)
⇒ 2013년 10월 현재 : 326,718명



▶ 박세환 회장 국가보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이와 같이 중복세력에 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 향군 회장을 비롯한 군 원로들은 20여 회에 걸쳐 대통령과 여·야당 대표 등을 방문하여 입장을 전달하고 항의하였다. 또한 향군이 주관하여 300여 회에 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애국안보단체가 주관하는 집회에도 50여 회 참여하였다.

3 이라크 파병을 이끈 향군



▶ '중북정당 해산' 국회 앞 기자회견 및 규탄(2012.6.14)



▶ 이적단체 해산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2012.8.14, 국회 앞)



▶ 한국일보 광고(2012.8.13, 27면)

아울러 전단 50만 매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였으며, 신문광고 10회, 100만 명 서명 국회 전달, 시·군·구별 매년 지역구 의원 설득, 향의 및 국보법 수호 결의대회,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2회, 공청회, 방송 토론 등도 20여 회 참가하였고, 인터넷 신문 및 네티즌 동원 사이버 활동도 집중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여론을 조성하는 데 우리 향군이 국가안보 지킴이로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향군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및 서명지 전달 등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03년 3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대량 살상무기(WMD) 제조를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고, 국내외의 반전 분위기 속에 파병 반대 여론이 높았으나 국회는 결국 파병안을 통과시켰다. 파병안은 2003년 4월에 통과되었으나 이라크전이 예상외로 일찍 종결되어 이라크 전후 복구와 의료 지원 임무로 2003년 5월 673명(서희부대 573명, 제마부대 100명)이 파병되었다.

파병부대는 '서희부대'와 '제마부대'로 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2003년 10월, 임무를 마친 1진과 교대하여 466명의 2진이 출국하였으며, 서희부대와 제마부대 2진은 2004년부터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에 주둔하며 전후 복구와 의료 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라크의 치안 부재 등으로 전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국은 2003년 9월 우리나라에 다시 전투병 파병을 요청했으며, 추가 파병에 대한 논란 속에 2004년 2월 이라크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이라크의 불안한 상황 등으로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04년 6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이라크 파병을 확정지었다.

그런데 파병 확정 발표 직후인 2004년 6월 22일 이라크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김선일 씨가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되었고, 그후 파병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와 여론의 악화로 파병은 오리무중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때 우리 향군이 파병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향군은 6·25 전쟁 시 대한민국 수호는 물론 전후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에 지대한 도움을 준 혈맹의 국가 미국과의 굳건한 한미동맹 구축과 반미 여론 형성을 차단하고, 경제적 이익은 물론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며, 다음과 같은 활동 등을 전개했다.

가. 원로정책협의회 운영 및 안보자료 지원

- 원로·정책자문위원 회의(4회)
 - 4차 : 2003. 11.11, 향군회관, 107명
 - ※ 2004년 안보대응 방향 토의·자문, 이라크 파병 지지 및 송두울 규탄행사 평가
- 범국민 구국협의회 회의(6회)
 - 3차 : 2003. 9. 19, 향군회관, 관련 실무자 10명
 - ※ 이라크 파병 지지 및 송두울 규탄 켈기대회 협의
 - 4차 : 2003. 10. 7, 향군회관, 117명(105개 단체)
 - ※ 이라크 파병 지지 및 송두울 규탄대회 계획 설명·토의
 - 5차 : 2003. 11. 6, 향군회관, 관련 실무자 10명

제2편 테마별 역사

※ 10·15 규탄행사 평가, 구국협의회 활성화 방안 토의

- 6차 : 2003. 12. 4, 서울클럽, 상임위원 5명

※ 이라크 파병 등 안보현안 토의

• 안보자료 지원

- 이라크 파병 지지 및 송두율 규탄 VTR 제작 지원(300개 단체)

- 회장 기고문 발송 3회(자문위원 85명)

※ 관련 단체 안보자료 지원으로 대국민 안보공감대 확산 기여

나. 파병 촉구 및 지지 활동

• 국군 파병 촉구 결의대회 : 2003. 3. 28, 국회 앞

- 참가 인원 : 베트남 참전, 해병전우, 서울시회 등 300명

- 내용 : 국회 파병 동의안 조기 처리 촉구

- 성과 : 국회 파병안 처리, 서희·제마부대 파병 계기 마련, 한미 동맹 강화 국민공감대 확산, 미국 내 친한 여론 조성

• 향군 창설 50주년 행사 및 이라크 파병 지지 결의대회 병행 개최 : 2003. 10. 8, 향군 컨벤션홀

- 참가 인원 : 본부 및 산하단체 임직원 250명

- 내용 : 파병 정당성 성명서 낭독(최정석 안보연구소장, 결의구호 제창(임직원 대표) : “정부는 이라크 파병 즉각 결정하라.”, “파병하여 국익 얻고 파병하여 경제 살리자.”

- 성과 : 파병에 대한 향군의 의지 대내외 과시

• 이라크 추가 파병 지지 및 송두율 규탄 쉼터대회 병행 개최 : 2003. 10. 15, 전쟁기념관

- 참가 인원 : 향군 및 범국민 구국협의회 115개 단체 25,000명

- 내용 : 조속한 이라크 파병 결단 촉구(행사 후 시가행진~시청), “파병하여 한미동맹 강화하자.”, “이라크 질서 한국군이 주도하자.”, “추가 파병문제를 언제까지 찬반 논쟁만 할 것인가?”

- 성과 : 적시적 쉼터대회, 정부 파병안 결정적 역할, 송두율 구속 기소 계기

• 향군회장단 노무현 대통령 방문, 파병 건의 : 2003. 10. 17, 청와대

- 참가 인원 : 향군 임직원, 시·도회장 등 200명

- 내용 : 조속한 이라크 파병 결단을 적극 건의, “이라크 추가 파병은 안보와 국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유엔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이라크 파병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

- 성과 :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 발표 : 2003. 10. 18, 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 이라크에 대한 추가 파병과 향후 4년간 이라크 재건을 위해 2억 달러 지원을 결정

• 이라크 전투병 파병 촉구 대응 : 2003. 10. 21~12. 31, 시·도·시·군·구회 단위

- 내용 : 파병 반대 의원 설득, 반대의원 항의 방문, 파병 반대의원 규탄행사

10.22	10.24	11.12
성동구 임종석의원 사무실	영등포 한나라당 앞	영등포 그린공원
성동구회원 50명	영등포회원 70명	영등포회원 60명

- 성과 : 파병 반대 세력 파병 저지 투쟁 차단 및 정부 파병안 조기 결정 계기, 파병 반대 의원 37명→26명으로 축소

• 국방부장관 초청 간담회 : 2003. 11. 7, 국방회관

- 참석 : 이상훈 향군회장, 백선엽 장군 등 원로장성 14명, 조영길 국방장관, 합참의장, 작전본부장 등

- 내용 : 국방부의 전투부대 파병 추진 촉구, “현재 이라크는 치안 유지가 급선무이며 전후 복구는 그 다음 문제임. 지지부진한 이라크 파병문제 관련 국방부의 완전 편제된 전투 부대의 파병 추진할 것” 촉구

- 성과 : 국방부 파병안 조기 마련 계기

다. 성명서·입장 발표(성명서 유료광고 게재 : 13건 16회)

• 향군 보도자료, 코나스(2004.2.14) “이라크 파병을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찬성 155표, 반대 50표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잘한 일이다. 반대한 50명 국회의원은 각성하라! 우리 향군은 이라크 파병을 적극 지지한다!”

• 조선일보 보도(2004.3.25) “이라크전 국군 파병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이번 미국과 우방국들이 전개하고 있는 대 이라크 전쟁은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전쟁인 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국익을 감안한 정부의 파병 결정은 매우 적절한 용단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건설공병과 의료지원단 등 비전투 부대 성격의 한국군 파병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의 확립은 물론, 향후 전후 복구 사업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등 국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반미 친북세력의 반전운동과 파병 철회 시위가 이 나라 장래와 안보를 위해하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써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이라크 추가 파병, 국익 위해 불가피하다!” 성명(2003.9.2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라크 추가 파병은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추가 파병 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도움에 대한 보답이자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길이다.
-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할 때 파병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다.
- 파병문제는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
- 미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 요청과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 이라크전을 제2의 월남전, 침략전쟁, 죽음의 전쟁터 등으로 매도하는 가운데 파병 불가론을 주장하면서, 이를 반미·반전운동으로 비화시켜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데 대해 심히 우려한다.
- 미국은 6·25 때 우리를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혈맹의 우방이기 때문에 미국의 파병 요청을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 또한 미국의 파병 요청은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구축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안보문제와 직결된 것으로서 우리의 이라크 파병은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길이다.
- 한미 현안 문제 해결, 우리 한국의 위상 부각, 경제 문제 등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할 때 파병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다.
- 파병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나 파병 시기가 늦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모르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과 시간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병자국지대사(兵者國之大事)’로 비유될 수 있는 파병문제를 국민 여론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소극적 자세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조기에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

- 이라크 추가 파병 지지 촉구 성명 발표(2003.9.23, 조선 외 5개 매체)
- “이라크 추가 파병을 절대 지지한다!” 성명(2003.10.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작금의 안보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전제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문제와 송두율 사건에 대한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이라크 추가 파병은 조속히 결단해야 할 일이다.

추가 파병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찬반 논쟁만 할 것인가? 이미 파병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입증된 지 오래다. 따라서 정부는 파병 시기를 조속히 결단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확고히 인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향군에서 대대적인 이라크 파병 지원병 모집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라크에는 이미 전쟁이 끝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적도 없다. 그리고 파병의 성격은 전투가 아닌 치안 유지다.

현역군 파병이 곤란하다면 향군에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향군회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이라크 파병 지원병 모집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가 경제 부흥의 제2도약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최대의 경제 불황과 안보위기에 놓여 있다.

이라크의 천문학적인 전후 복구 시장과 석유 공급선 확보는 시급하다. 이라크인들은 한국인을 좋아한다. 지금 우리의 중고차와 전자제품은 없어서 못 팔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 추가 파병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도이다.

- 송두율은 민주인사의 탈을 쓴 거물간첩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거액의 공작금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해온 노동당원 송두율이 민주인사라면 김일성 침략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수백만 호국영령은 무엇이란 말인가?

송두율 사건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까지 민주와 진보를 위장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꾀하는 친북 이적세력이 뿌리 깊이 침투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송두율을 의법 처단한 후 국외로 추방함은 물론, 간첩을 민주인사로 미화시킨 KBS 사장과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각계각층의 친북 좌경 연계세력을 발본색원하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이라크 파병 지지 및 송두율 씨 의법 추방 촉구(10.11, 조선, 동아) 등
- 이라크 치안유지군 파병 촉구 성명서 발표(11.7, 조선 외 5개 매체)

제2편 테마별 역사

- 이라크 파병 최종 결정 관련 환영 성명(2004. 6. 19)
이상훈 회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 최종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다음과 같이 크게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우려해 왔던 이라크 추가 파병을 정부 당국에서 최종 결론 내린 것은 국익을 위한 현명한 결정이다.

또한 재론되던 이라크 추가 파병이 정부방침으로 결정된 이상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로 파병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파병을 둘러싼 찬반 논쟁의 조기 종식과 국론 결집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 주둔 연장 결정 환영 성명(2007. 10. 2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이툰 부대 일부 병력의 파병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를 적극 지지 환영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향군은 이라크 내의 치안유지 기능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이툰부대의 파병 목적인 이라크 국민들의 구호활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이툰부대가 임무 수행을 그만두고 철수한다면 국제적 신의를 저버림으로써 국제적인 비난거리가 될 것이므로 정부의 이라크 파병 부대의 주둔 기간 연장 조치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병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OECD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질서유지의 국제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둘째,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관계 공고화가 필요하며 셋째,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 등 국제적인 공조가 강화되어야 하고 넷째, 향후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적 이익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 결정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MBC 생방송 화제집중 : 2003. 3. 31, 정창인 위원, 이라크 파병 낙선운동 견해
- 퍼시픽 라디오 인터뷰 : 2003. 9. 19, 정창인 위원, 이라크 파병 관련
- iTV 100분 토론 참가 : 2003.12. 5, 정창인 위원, 한국인 테러 이후 추가 파병 찬반 토론
- 향군 코나스(KONAS)
“이라크 파병을 지지합니다”
“파병 반대 국회의원 심판하기에 참여합니다”
“이라크 파병 지지 및 송두울 규탄대회에 참가합니다” 등

마. 국민대회, 사진 전시회, 기타 활동

- 3·1절, 6·25 국민대회 총 39점
- 파병 촉구 쉼기대회장(2003.10.15, 전쟁기념관), 본관 1층 로비
- 안보대응 진단 제작(2003.1.23~2.10)
- 시·도, 시·군·구 관련 단체, 교회, 학교기관 배부
- 북한 핵무기 개발, 왜 저지해야 하나! : 10만 매
- 주한미군 철수 주장, 얼마나 위험한가? : 10만 매
- 팸플릿 제작(2003.2.10~28)
- 시·도회, 안보단체, 학교기관 400부 배부
- 북핵문제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
- 이라크에 축구공 보내기 운동 적극 동참
- 일시 : 2004. 3. 1~30
- 내용 : 동아일보사가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라크에 축구공 보내기’에 향군이 적극 동참하기 위한 모금활동 전개하며, 현역 후배들의 이라크 파병 격려
- 이상훈 회장, 방한 중인 미(美) 체니 부통령과 환담
- 일시·장소 : 2004. 4. 16, 용산 미 8군기지
- 내용 : 한미 상호 간 이해 및 우호 증진을 위해 한미연합사령관 주선,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 공동 관심사 등

이와 같이 파병을 위한 향군의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파병 반대 여론을 우호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정부는 자이툰부대 병력을 2004년 7월 19일 신천지작전을 시작으로 8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단본부가 아르빌에 전개를 완료한 이후 약 4년 3개월 만인 2008년 12월까지 자이툰부대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철수하였다.

자이툰 부대는 파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 번의 난관이 있었고, 처음 파병할 때도 힘들었지만 그 이후 4차례에 걸쳐 파병 연장을 추진할 때마다 반대운동으로 인해 어려운 고비를 극복해야 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

그중에서도 2004년 2월 최초 키르쿠크에 파병하려 했으나 그 지역의 치안이 불안해지자 파병 지역을 2004년 6월 18일 아

라. 언론 대응활동

- MBC 100분 토론 : 2003. 3. 17, 안보연구소장 외 10명, 이라크 파병과 우리의 선택
- YTN 인터뷰 : 2003. 3. 24, 안보연구소장, 이라크 파병의 당위성
- KBS 9시 뉴스 인터뷰 : 2003. 3. 29, 안보연구소장, 이라크 파병 찬성

르빌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6월 22일 김선일 씨 피랍사건이 발생하면서 또 다시 파병이 지연되었다.

이에 향군은 추가 파병을 위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급기야 향군 임직원들과 시·도회장 등 200명은 2003년 10월 17일, 청와대를 방문,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속한 이라크 파병을 결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음 날인 10월 18일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발표했다. 향군이 이라크 파병을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것이다.

또한 향군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규모 3·1절, 6·25국민대회와 전쟁기념관에서의 쫓겨간대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안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안보 중심 세력으로서의 향군의 위상을 크게 부각시키고 대한민국 안보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 첫째, 이라크 파병 조기 결정 및 파병에 결정적 기여
- 둘째, 이라크 추가 파병 및 자이툰부대 주둔 연장 기여
- 셋째, 국내 반미주의 및 종북세력의 패퇴 주도
- 넷째, 한미동맹 강화 및 주한미군 지지 통한 국가안보 기여
- 다섯째, 세계평화와 질서 유지의 국제적 책무 수행, 국익 및 국위 선양 기여



▶ 이라크 추가 파병 지지(2003.10.15)



▶ 이라크 추가 파병 지지 시가행진(2003.10.15)

4 율곡포럼 및 율곡강좌

율곡포럼 및 강좌는 율곡 이이 선생의 10만 '양병론'의 정신을 이어받아 유비무환의 대국민 안보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가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선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 등과 연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를 지원하고 국민안보관을 바르게 계도하기 위해 2007년 1월5일 율곡포럼 창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하달하고, 2007년 1월 31일부로 창립하였다.



율곡포럼은 향군 원로, 자문위원, 이사 및 지역사회의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회원을 구성하고 안보 현안별 사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월, 격월, 분기, 반기 단위로 정기적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안보 전문지식을 고양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율곡강좌는 향군 임직원 및 회원과 참전 친목단체, 사회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의식 고취 및 확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시행 주기는 본회의 반기 단위, 13개 시·도회는 분기단위, 222개 시·군·구회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했으며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가. 율곡포럼 및 강좌 추진 경과

- 2007. 1. 5 : 율곡포럼 창립 및 운영 계획 보고 및 하달
- 운영 방침
 - 율곡포럼은 본회, 시·도 및 시·군·구회는 '21C 율곡강좌' 설치
 - 이사회는 당연직(회장단 5명, 국실장 3명, 서울시 향군회장, 향군여성회장으로 총 10명), 임명직은 국내 안보분야 저명인사와 안보강사 중에서 20명 내외로 선임
 - 정회원은 향군 임직원과 안보정책자문위원 중 희망자 400여 명을 선임(본회 138명, 서울시회 52명, 안보정책위원 138명, 일반시민 72명)
 - 이사장은 본회 회장, 사무총장은 안보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
- 2007. 1. 31 : 본회 '21C 안보복지 포럼(이하 21C 율곡포럼)' 창립 서울시는 2007년 후반기, 시·도는 2008년 상반기, 시·군·구는 2008년 하반기 각각 창립
 - ※ 강연 내용은 '국가안보의식 각성의 해' 원고 사용
- 2007. 9. 13 : '21C 율곡포럼·강좌' 운영 지침 하달
 - 각 시·도 및 시·군·구회는 2007년 10월, 11월 중에 '21C 율곡포럼·강좌'를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 안보복지대학에서 계획한 '6·25 바로 알리기' 병행 실시

제2편 테마별 역사

연도별 추진 실적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울곡포럼	130회/24,326명	186회/41,020명	109회/23,385명
울곡강좌	490회/101,038명	603회/123,329명	360회/82,310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울곡포럼	52회/11,577명	169회/32,092명	140회/37,142명
울곡강좌	832회/184,579명	758회/157,881명	524회/96,897명

본회 주요 추진 현황

순서	일시	장소	인원	강사	주제
1	2007. 1.31	잠실향 군회관	600명	서초구회장 권기덕	포럼 운영에 대한 사례 발표 *발기인 317명
2	2007. 4.22	잠실향 군회관	850명	김태우 박사 김종훈 한미FTA 협상수석	주제 : 북핵과 2.13 베이징 합의 전망 *향군 정기총회 병행
3	2007. 5.30 ~31	성남 새마을 연수원	350명	김성욱, 최광, 이상우, 황수관	친북좌파 활동 현황, 부국안민의 길, 2007년 대선은 대한민국 명운의 갈림길, 신바람 건강법
4	2007. 7.19	잠실향 군회관	165명	정용석 박사	한나라당 '한반도 평화 비전' 무엇이 문제인가?
5	2007. 9.28	잠실향 군회관	138명	송대성 박사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남북 정상회담 : 허와 실
6	2007. 12.28	잠실향 군회관	176명	정용석 박사	대통령 당선자의 안보관과 향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
7	2008. 2.22	공군 회관	101명	조갑제 대표 (조갑제닷컴대표)	보수세력의 자정(自淨)
8	2008. 5.21	국방 회관	139명	박진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9	2008. 7.29	전쟁 기념관	127명	이주천 교수 (원광대 교수)	현 안보정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10	2008. 9.23	전쟁 기념관	130명	김동길 박사 (태평양시대위원회 대표)	사회문화 분야의 좌경화 실상과 대응 방안
11	2008. 12.19	군인 공제회관	157명	김태우 핵전략박사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원장)	미 오바마 정부의 대북 핵 정책 전망
12	2009. 1.30	군인 공제회관	193명	이상우 박사 (신아시아연구소장, 전 한림대 총장)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
13	2009. 4. 30	전쟁 기념관	139명	김희상 장군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북한 대남 협박 함의 (含意)와 대책
14	2009. 7.23	전쟁 기념관	153명	김성환 비서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북핵 위협과 한미 정상회담 성과
15	2009. 9.30	전쟁 기념관	150여 명	청용화(주한 중국 대사)	북한 핵문제와 對 한반도 정책 변화 전망

순서	일시	장소	인원	강사	주제
16	2010. 3.3	전쟁 기념관	130명	남성욱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최근 북한 동향과 한반도 안보정세 분석
17	2010. 4.20	프레스 센타	653명	채명신 장군 이상훈 장군, 황진화 의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연내 매듭
18	2010. 10.4	프레스 센타	619명	고영주 변호사 유동열 연구관	종북 좌파세력의 실체와 국가안보
19	2011. 5.23	프레스 센타	512명	양동안 교수 강철환 기자	종북 좌파세력의 실체와 국가안보
20	2011. 9.21	프레스 센타	516명	장세울 방송국장 김진 논설위원	종북세력 척결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21	2012. 5.24	프레스 센타	505명	유호열 교수 전원책 변호사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와 국가안보
23	2013. 7.23	프레스 센타	500명	변희재 평론가	NLL 포기가 갖는 국가반역 성과 우리의 각오(기자회견과 병행 실시)
24	2013. 11.21.	프레스 센타	500명	김현욱 전 평통 수석부회장	연평도 포격 도발 및 종북세력 척결

이처럼 향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점증과 '6·15 공동선언' 이후 친북 좌익세력들의 사상 공세 강화와 안보 불감증이 만연된 국가 안보 위기 상황 하에서 울곡포럼과 강좌를 통해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의식 계도와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군은 울곡포럼과 강좌를 지속적,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민복지 증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 21C 울곡포럼 창립(2007.1.31)



▶ 울곡포럼(2008.9.23)

5 6·25 바로 알리기

6·25 전쟁은 민족 최대의 비극적인 전쟁으로 세계 역사가들은 '제2차 대전 후 발생한 크고 작은 150여 회에 달하는 전쟁 중 6·25 전쟁이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눈 가장 비극적이고 처참한 전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후 세대 대부분(88.4%)이 6·25 전쟁에 대해 '조선시대의 전쟁이나 일본과의 전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좌경세력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인한 그릇된 교육의 결과 6·25 전쟁을 북침(北侵)으로 인식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향군은 국가의 미래 불투명하고, 국가안보에 위기가 직면했음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법률제6348호) 제4조에 의거, 800만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범국민적으로 모교 후배들에게 '6·25 전쟁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비롯한 각종 안보활동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가. 교재 제작(만화: 잊혀진 6·25 전쟁, 동영상: 6·25 전쟁 참상)

2007년 10월 22일 발간한 교재는 초등학생(393만 명)과 중학생(210만 명), 고등학생(178만 명)을 대상으로 만화(잊혀진 6·25 전쟁)와 동영상(6·25 전쟁 참상)을 제작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의 식민통치와 독립운동, 해방과 북한의 남침 준비, 6·25 전쟁과 실상, 북한의 대남 만행 사례, 교훈 및 우리의 자세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문은 다음과 같다.

"「6·25전쟁 바로 알리기」는 6·25 전쟁이 시작된 1950년 평양의 고등학생이었던 김순옥(예비역 해군대령) 씨의 '6·25란 무엇인가?'를 토대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보완해서 만화가 강하늘 씨가 그림을 그렸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는 회법(법률제6348호)과 정관 제4조(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따라 '6·25 전쟁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향군회원·선배들의 후원금을 모아 이 만화를 제작하였다. 모조록 온 가족이 함께 읽어 이 만화가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초·중·고등학생들과 가족 여러분들이 6·25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만행을 저지른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만화·동영상 제작 시 만화 표지면과 동영상 도입부와 맺음부에 기업홍보용 광고물을 삽입하고 협찬으로 받은 학용품, 학습지, 생필품·과자, 식음료 등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위와 관련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등 기업체 광고가 게재되었다.

아울러 표지 후면에 향군을 소개하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향군 대외홍보에 기여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다.

책 배포는 시도회장 책임 하에 지역 학교 의견 수렴 및 건의 원칙에 의거 중·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후원자가 직접 모교를 방문하여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자 위임 시 향군 조직에 의해 배포하거나 택배로 송달하였다.

또한 2008년도에는 6·25 전쟁 바로 알리기에서 역사 바로 알리기 '국민계도' 차원으로 확대하여 「6·25 전쟁과 北의 만행」 만화책 650만 권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나. 후원금 모금

후원금 모금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애국시민, 각종단체, 기업체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모교에 '6·25 전쟁 바로 알리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병행 추진하였다.

첫째, 일반시민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신문광고로 일괄 모집하여 7월 초 주요 일간지와 국방일보, 향군보, 향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둘째, 개인 후원자는 개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조 서신을 발송하였다.

셋째, 단체·기업체 후원자는 향군 참전 및 친목단체, 산하업체의 협력업체 등 1,000대 기업 및 연고 기업 등에 동참을 권유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후원금 동참 방법은 개인 및 단체·기업체별 후원 계좌(1계좌 10만 원)를 지정하여 출연하도록 하였으며, 개인 명의 후원 방법은 후원자가 모교(초·중·고등학교)를 지정하여 기증하는 방식과 후원자가 직접 기증, 후원자 명의로 모교에 기증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했다. 단체·기업체 후원 방법은 단체·기업체 부담을 고려, 10~100계좌 범위 내 출연토록 권장하였으며, 단체·기업체 명의로 특정지역, 특정학교를 지정하여 기증하거나 임직원 명의로 모교를 지정하여 개인 명의 기증을 가능토록 후원금 출연 시 임직원 명단, 지정 학교, 졸업 기수 등을 통보 받았다.

다. 6·25 바로 알리기 캠페인

- 기간 : 2007. 7. 1~2008. 6. 30(3단계로 구분, 단계별 추진)
- 대상·인원: 초·중·고교생 약 800만 명, 235개 시·도회 35,380명, 3,412개 읍·면·동회 33,332명
- 주제 : 안보 바로 알리기 소개, 본회 제작 '6·25 전쟁 참상' CD 배포
- 시·도회별 분담 현황, 읍·면·동회는 21C 읍곡 좌담회와 병행 추진

회 별	서울시	대구·경북	대전·충남북	전북도
지휘부	본회 회장	육군 부회장	해군 부회장	공군 부회장
담당부장	조직부장	안보부장	사업관리부장	회원관리부장
교수	김명제	최병열 외 2명	고재호 외 2명	이대재 외 1명

제2편 테마별 역사

광주·전남	부산·경남	경기도	인천·강원	제주도
안보국장	직능 부회장	사무총장	해병 부회장	안보국장
조철상	총무부장	편집부장	기획부장	조철상
국장, 부장	오면수 외 2명	김용택 외 2명	송기학 외 3명	국장, 부장

※ 홍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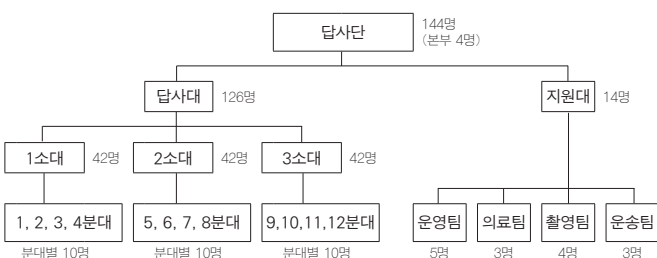
- 6·25 전쟁 제57주년 행사 보도 : 125회(KBS-1 등 향군 최초 생중계)
- 6·25 전쟁 바로 알리기 캠페인 보도(7.10~11, 중앙, 국방일보 게재)
- 호국보훈의 달 관련 박세직 회장 기고 및 인터뷰 : 3회(동아, 연합, 국방)

라. 6·25 바로 알리기 홍보(매년)

- 안보정책 지원 활동 : 안보활동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 안보단체협의회 운영
 - 애국 안보단체 각종 행사(오바마 미 대통령 환영 등) 지원
- 6·25 전쟁 기념 행사
 - 예산 동결로 정부 행사로 대행하나, 식전 행사 시 향군합창단 합창 공연으로 분위기를 격상하고, 식후 행사 시 다양한 군 시범으로 볼거리 제공(여군의장대, 3군 의장대, 전통 무예 시범 등)
 - 중앙 행사 : 현충원 참배, 참전용사 위로연, 대학생 전적지 답사 등
- ※ 대학생 휴전선, 전적지답사 국토대장정
 -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휴전선 및 전적지를 직접 보고 느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나라 사랑 의지를 고양시킴
 - 기간 : 매년 6.25~7.5, 인원 : 144명(편성: 아래 도표 참조)
 - 소요 예산: 약 1억여 원
 - 국가 보훈처 지원 : 2011년 2500만 원, 2012년과 2013년 각 4000만 원
 - 연도별 실시 현황

회차	연도	기간	구간	지원자	선발	지원율
1	2008	6.25~7.4(9박10일)	서울-대구	224명	100명	2.2:1
2	2009	6.25~7.6(11박12일)	서울-포항	521명	108명	4.8:1
3	2010	6.25~7.6(11박12일)	서울-부산	950명	108명	8.8:1
4	2011	6.25~7.5(10박11일)	김포-양양	1670명	120명	14:1
5	2012	6.25~7.5(10박11일)	김포-양양	1430명	130명	11:1
6	2013	6.25~7.4(9박10일)	서울-부산	533명	130명	4.1:1

- 답사단 편성



- 지방 행사: 시·도 및 시·군·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실시
- ※ 6.25전쟁 60주년부터 재향군인회에서 정부 및 지자체로 행사 주관 변경

- 안보교육 지원 체제 강화
 - ※ 6월 호국보훈의 달과 10월(향군의 날) 집중 지원
- 안보연수회 및 대외 위탁 교육
 - 안보교육 전문요원 연수회(연 1회)
 - 시·군·구 안보강사 통일교육원 위탁 교육(연)
 - 국가정보대학원 위탁 교육
 - ※ 강사 강연 능력 향상을 위해 통일교육원, 국가정보대학원 등에 위탁 교육 및 안보교육 전문요원 연수회 실시
- 안보현장 체험(입직원, 가족, 회원 등)
 - 장소 : 관문점, 땅굴, 안보공원, 통일전망대, 전적지, 군부대 등
 - ※ 안보현장 체험을 통해 안보의식 고취 및 계도교육 병행 추진
- 군부대 교육(예비군, 현역 등)
 - 안보정세, 대북관 정립 교육 등
- 대국민 안보제도 활동
 - '북한의 대남적화 책동' 연구 및 교재 발간
 - 교관요원 교육 : 47명(시·도 안보부장, 위촉 안보교수)
 - 국민제도 활동 : 향군회원·고등학교 학생 등
 - ※ 2009년 11월 수능 후 약 1개월간 학교 자체 교육 기간 활용
- 안보연구 활동
 - 안보정세 분석 발간(분기 1회) : 안보교육 참고자료
 - 향군 시사저널 발간(반기 1회) : 연구 및 교육자료 활용
- 안보학술 활동(세미나, 심포지움)
 - 세미나·심포지움 : 안보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별도 시행
- 향군 대토론회(연간 2회): 안보단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 학계, 정계 등의 저명인사를 초청, 비 안보단체의 허망된 이론 재정립 계도
- 안보 위해요소 감시 활동
 - 주간 안보현안 분석, 애국안보단체·좌파단체 동정 파악
- 6·25 전쟁 63주년 6·25 국민제도용 자료 배포(시·도회 안보부장 등) : 대한민국, 그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다!

향군은 이와 같은 6·25 전쟁을 바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청소년(학생) 및 대국민 안보교육의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 및 계도교육의 주축으로 위상을 강화하였다.

특히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집중적으로 6·25 전쟁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대선·총선 시 좌파정권을 종식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지금 이 순간도 지속적으로 6·25 전쟁 바로 알리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6·25 바로 알리기 만화 배부(2007.10.8)



▶ 6·25 바로 알리기(만화)



6 사이버 안보매체 Konas 창간

향군을 대변하는 사이버 언론매체 코나스(KONAS.net, Korean National Security)가 2003년 11월 11일 잠실 향군회관에서 뜻깊은 창간을 했다.

이날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로 큰 의미가 있는 날로서 6·25전쟁 이후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코나스가 사이버 안보매체로서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향군의 굳은 의지가 내재되어 있는 날이기도 했다.

코나스는 사회 저변의 인터넷 영향력 급증과 좌편향 사이트 범람 및 청소년층에 왜곡된 이념 무차별 노출로 인해 인터넷 공간의 이념적 오염이 심각하고, 북한의 사이버 대남 심리전이 격화됨에 따라 향군 주도의 사이버 안보 매체의 증대가 절실히 요구되어 창간하게 되었다.

코나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상에서 안보 위해요소 감시 및 대응

둘째, 북핵, 한미동맹, 국보법 등 안보 관련 뉴스, 사실, 칼럼 게재

셋째, 안보 관련 세미나, 포럼, 토론회, 집회 등 현장 취재

넷째, 네티즌 관리 및 뉴스레터, 코나스 플러스 편집, 송고

다섯째, 뉴스 및 기사 관련 이미지 제작 활용 등이다.

이와 함께 보수단체 사이트와도 연대 구축하여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면서 인터넷상 안보 전문지 역할은 물론 회원 간 사이버 대응을 통한 안보요원으로 전사화하는 데 목적을 갖고, 총 5명(인터넷안보부장 겸 편집장 1명, 취재기자 2명, 사이트 관리 담당관 1명, 웹디자이너 겸 프로그래머 1명)의 창간 인원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며, 2013년 11월 11일 역사적인 창간 10주년이 되었다.

가. 연도별 회원 현황

구분	창립 시	2009.7	2011.6	2012.4.16	2013.11
인원	17,682명	52,000명	179,000명	200,000명	218,000명

나. 연도별 주요 추진 실적

연 도	주 요 내 용
2003	- 코나스 창간, 향군 네티즌 결단식(11.11, 향군회관) • 참석 인원 : 본부 산하업체, 시·도회장, 친목단체 등 - 코나스 사이트 공급, 관리자 페이지 공급업체 계약(12.8, 계약업체 : 주식회사 이돌)

제2편 테마별 역사

2004	- (주)연합뉴스 수주 계약 체결(2.1) - 청년·대학생 네티즌 초청 간담회(2.25/3.30 2회) · 장소·인원 : 향군회관, 140명 - '국가보안법 존치' 관련 칼럼집 제작(491만부) · 제목 :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 인터넷사이트 대표자 초청 교육(9.22) · 목적 :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티즌 활동 강화 방안 토의 · 대상 : 자유북한방송 등 인터넷 사이트 대표자 30명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사이버 시위 동참(10.4) · 장소 : 열린우리당 자유게시판 - 코나스 창간 1주년 기념식, 인터넷 범구국협의 발대식(11.11) · 장소·인원 : 향군회관, 애국안보단체 홈페이지 관리자 등
2005	- '한미동맹 강화 골기대회' 홍보물 제작(1억1천3백1만 부) - 창간 2주년 기념 안보 체험 수기 공모 우수작 시상(12.7)
2006	- 코나스 필진 초청 환담(12.22) · 대상 : 박태우, 이동복, 홍관희 등 31명 - 인터넷 청년사이트 및 언론매체 초청 간담회(12.27)
2007	- 우수 네티즌(8명) 포상(6.28) - 인터넷 청년 사이트 및 인터넷 매체 초청 간담회(12.7) · 인원·장소 : 31명, 잠실 두레박
2008	- 코나스 자문위원(10명) 위촉장 수여(1.30), 국방회관 · 대상 : 신혜식(독립신문), 김영환(뉴데일리), 지민호(프리존미디어) 이원창(프런티어타임즈), 조영환(울인코리아), 현소환(뉴스앤뉴스), 여영무(뉴스앤피플), 김성민(자유북한방송), 조갑제(조갑제닷컴), 강길모(프리존뉴스) - 코나스 창간 5주년 행사(11.11) · 장소 : 전쟁기념관 · 대상 : 회장단, 중앙이사 및 감사, 시·도회장 및 안보부장 등 240명
2009	- 코나스 회원 10만 목표 달성 우수회 포상(12.23) · 대상 : 최우수회(1)-경북도회, 우수회(2)-대구시회, 인천시회
2010	- 창간 7주년 기념 네티즌 초청 간담회(11.12) · 대상 : 보수 청년 사이트 및 보수 언론매체 26명 - 우수 네티즌(칼럼)진 선정 포상(12.26), 대상 : 13명
2011	-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뉴스 검색 제휴(2.1) · '뉴스파인더' 창간 : 2011. 2. 14 - '뉴스파인더' 창간에 따른 회원사 가입(3.15) · '뉴스파인더' 창간 : 2011. 2. 14 · 가입회원사 : 통일로드 등 35개사 - '한국대학생포럼' 운영진(11명) 간담회(3.23) · 목적 : 3.1절 국민대회 참가, 활동 격려 및 향군 활동 연계 행사 참여 - 코나스 단독 On-Line 서명운동 전개 · 이적단체 해체 국가보안법 개정(4.1~) ·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구출' 서명(11.1~12.7) ※ 국회입법 청원자료, 국회 '인권법' 통과, UN 제출자료로 활용
2012	- 참전 및 친목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진 초청행사(2.24) · 장소·인원 : 향군회관, 40명 - 코나스 회원 20만 돌파 기념(4.16) - 인터넷 언론매체 및 보수단체 홈페이지 운영진 초청행사(6.11) · 장소·인원 : 국방회관, 35명 - 2012년 안보활동 실무회의(10.29) · 목적 : 종북세력 척결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결의 · 대상 : 시·도회 안보부장 및 인터넷 담당자 등 31명 - 참전·친목단체 인터넷 담당자 초청 간담회(11.27) · 장소·인원 : 향군회관, 75명 - 안보활동 우수자(10명) 포상(12.4)
2013	- 대학생 단체, 보수 인터넷 언론매체 초청행사(5.14) · 장소·인원 : 국방회관, 20명 - 코나스 사이트 리뉴얼 업체(주)위앤아이티 선정(6.1) - 코나스 창간 10주년 행사(11.26) · 장소·인원 : 전쟁기념관, 인터넷 보수매체 등 114명

다. 연도별 취재 및 보도 결과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38건	2,311건	1,036건	1,138건	1,349건	1,524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37건	1,889건	1,934건	1,553건	1,730건	

향군을 대변하는 사이버 언론매체 코나스(Konas)는 지난 10년 동안 위와 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면서 인터넷 공간의 '안보 지킴이'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종북세력 척결의 숨은 공로자이자, 보수 인터넷 매체의 대표로서 대내외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안보 전문지'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코나스 일일 평균 접속율은 45,000~55,000명이며, 사이트 일일 방문자가 최대 98,451명(2013.7.28)에 달한 기록도 있다. 또한 뉴스미디어 순위 랭키닷컴에 의하면 코나스가 뉴스미디어 기타 전문 사이트 105개 중 16위라고 밝혔다. 이처럼 코나스는 1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자랑하며, 사이버 안보 전문지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코나스 창간 5주년 행사(2008.11.11, 전쟁기념관 뮤지엄홀)



▶ 코나스 10주년 행사 (2013.11.26, 전쟁기념관 뮤지엄홀)



▶ NLL 10주년 국민대회(2013.7.6, 청계 광장)

7 향군 발전 1·2·3 운동

향군 발전 1·2·3 운동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참전용사와 회원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국가안보 역군을 양성하고, 향군회원의 권익 증진과 '젊고 힘 있는 선진 향군'의 주축이 되는 청년회원 확보를 위하여 2009년 향군의 날 행사 시 박세환 회장이 제안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게 되었다.

가. 향군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을 위한 '1' 운동 추진

향군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 운동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참전용사의 후손과 제대군인 자녀들 중에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자녀들을 국가와 사회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향군이 나서서 이들을 지원하여 국가안보의 디딤돌을 만들고자 100만 명의 회원이 각 1만 원 출연을 목표로 향군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 '만 원 모으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2009년 11월 2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장학사업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후 12월 16일 장학기금 1억 원, 2010년 12월 24일에는 10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기부금품 모집 종료일인 2011년 10월 23일까지 기존 장학기금을 포함하여 22억 5천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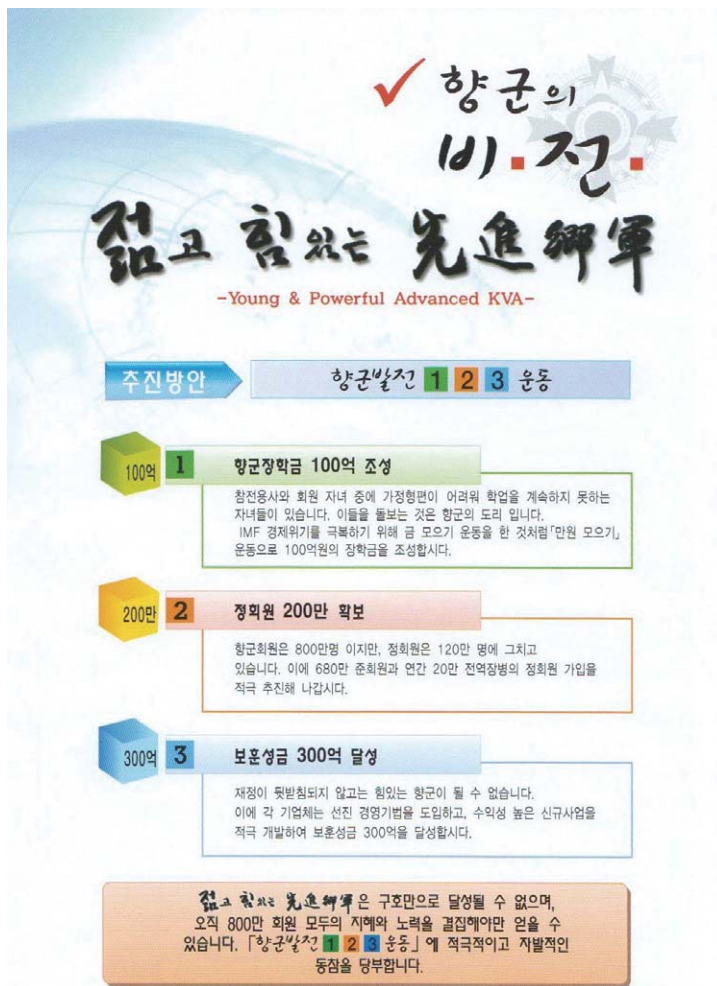
향군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과 장학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2일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명실공히 공익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2013년 12월 현재 장학기금은 1,051개 단체와 4,839명의 개인이 참여하여 35억 7천여 만 원이 조성되었다.

장학기금 지원은 1984년부터 중·고교생 위주로 지원하다가, 2012년 대학생에게 처음으로 3,600만 원(36명, 개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고교생 6,660만 원(222명, 개인당 30만 원)을 포함 1년간 총 1억 26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대학생 28명과 고등학생 222명에게 9,660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장학기금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감동적인 사연이 많았다. 그 중에 여군으로 복무 후 군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전복식(74) 여사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 매달 5만 원씩 8년 동안 적립한 5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내놓았고, 울산시에서는 80세가 넘는 6·25 참전용사 170명이 참전 수당 일부를 모아 321만 원을 쾌척하기도 하였으며, 해외에서는 미국 워싱턴 향군지회가 10달러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13,210달러를 기부했고, 일본지회 2천만 원 등 해외 19개 향군지회에서 총 9,900여 만 원을 보내왔다.

또한 박세환 회장은 자서전 출판기념회 수익금과 5·16 민족상 안전보장부문상 상금 전액 등 8,450만 원을 기부하였다.

향군 장학사업은 국가안보 백년대계와 국민적 보훈 분위기 확산 및 대한민국 국가관과 안보관이 확고한 인재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일이며 동시에 향군의 단결과 젊고 힘 있는 선진 향군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향군 발전 1·2·3 운동 팸플릿



▶ 장학기금 1억 원 돌파(2009.12.23)



▶ 장학기금 3억 원 돌파(2010.3.11)



▶ 장학기금 30억 원 돌파(2012.7.27)

제2편 테마별 역사

나. 정회원 200만 명 확보를 위한 '2'운동

정회원 200만 명 확보 운동은 향군회원 850만 명 가운데 정회원은 128만 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서 나머지 680만 명 회원과 연간 배출되는 전역장병 20만 명의 정회원 가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향군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 참전단체 회원들이 연령 분포가 70~8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향군의 젊은 정회원 확보는 향군이 당면한 시대적 요구로 젊은 회원 유치에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회원 유치를 위한 추진 사항으로 내 가족, 내 친지부터 향군 회원에 가입하기, 정회원 가입 활동 노력 배가하기, 향군 소개 및 홍보 활동 강화, 회원 가입 절차 간소화 및 가입 혜택 확대, 기존 회원 추적 관리 체제를 보완했다.

이러한 추진 사항이 활성화 되도록 각급회별로 유치 목표를 설정하여 실적에 따라 우수회를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매년 3만 명 이상의 신규 회원을 유치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정회원 모집 실적

2010년			2011년			2012년		
목표	실적	달성	목표	실적	달성	목표	실적	달성
34,482명	31,717명	92%	34,532명	38,272명	110%	32,910명	32,170명	98%

※ 2013. 12월 현재 향군 정회원 : 132만 명

연도별 정회원 확보 우수회 및 산하업체

2010년			2011년			2012년		
시도회	시군구회	산하업체	시도회	시군구회	산하업체	시도회	시군구회	산하업체
대구시회 (159%)	수성구회 (366%) 춘천시회 (364%) 당진군회 (230%)	(주)통일 전망대 (109%)	인천시회 (254%)	인천남구회 (913%) 대구북구회 (877%) 태안군회 (602%)	향우실업(주) (825%)	강원도회 (123%)	횡성군회 (454%) 달성군회 (231%) 계양구회 (181%)	향우실업(주) (581%)

또한 2009년 12월 27일부터 그동안 수작업으로 각급회에서 관리하던 회원증 발급을 본회에서 일률적으로 통합 발급하여 전산화에 의한 정확한 회원 실사를 시작하고, 회원증 또한 고품격의 플라스틱 재질로 개선시켰다.

2011년 9월에는 향군 정회원 가입 안내를 위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향군 홈페이지와 그룹웨어, 코나스 및 국방부와 각군(육·해·공군, 해병대)의 홈페이지, 대학교 등 내·외부의 사이버 공간에 탑재하였으며, 각급회에도 배부하여 회별 카페 등에 탑재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전역 간부를 대상으로 향군 소개 및 정회원 가입 설명회를 매월 1회씩 보훈교육원에서 실시하고, 향군 정회원 가입 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대 가맹점을 1,400여 개로 확대하는 등 정회원 복지혜택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2009년 12월 27일에는 국방부와 각군 본부의 협조를 얻어 전역 장병과 예비군들에 대한 가입을 추진한 바가 있으나, 제한사항 등으로 그 실적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다. 보훈성금 300억 원 확보를 위한 '3' 운동

보훈성금 300억 원 달성 운동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힘 있는 향군이 될 수 없기에 향군의 각 기업체가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수익성 높은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운동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1) 분기 경영 평가를 통한 경영 진단 및 지속 성장 뒷받침

- 산하업체별 재무구조 개선으로 경영지표 개선
- 산하업체 부장급 회의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업무 제휴

(2) 산하업체 예산 운영 지도 방문 및 직무 교육

(3) 미래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대체산업 개발, 임대 수입 창출

- 회관 재건축사업 본격적 추진 → 잠실 향군타워 준공
(공사기간 : 2011.3.3~2013.4.5)
- 지식산업센터(성수회관) 신축공사 추진
(공사기간 : 2011.10~2013.5)
- 위례신도시 내 향군복지타운 건립 추진

(4)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익계약 감소 대책 강구

- 2010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향군의 수익계약이 2016년부터 종료되어 재정 자립도에 큰 영향 예상
-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적 배려 요망, 정부·국회 등 협조 요청

이와 같이 보훈성금 300억 원을 목표로 출발한 향군은 2011년 8월부터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부동산 투자 손실 등 언론보도 이후 금융권 신용도가 낮아지고, 직면한 부채 상환을 위한 사업장 정리와 부실 자산 매각,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단행하게 되고, 이의 타개책 일환으로 수익계약 연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향군의 수익계약 수익은 연간 사업 예산의 1/3 수준으로, 폐지 시 향군의 사업 수행 제한과 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2012년 7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회, 청와대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건의와 협의 노력한 결과, 정부는 현 수익계약 총 금액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 연차별 삭감하기로 한 기준에서 수익계약 축소 규모를 조정하기로 합의하여, 향군의 입장을 수용했다.

보훈성금 300억 원 달성을 위한 3운동은 향군의 재정 위기 극복

을 위해 목표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체별 연도별 보훈성금 납부 현황은 다음 같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회사별				
계		19,850	19,750	27,600
중 앙 고 속		5,500	6,600	7,500
향 우 산 업		-	200	500
향 우 실 업		3,000	3,800	3,800
종 합 관 리		500	600	500
통일전망대		300	-	100
충주호관광선		200	200	200
향군상조회		-	300	500
종합사업본부	S&S사업	1,750	1,450	1,900
	제조사업	3,200	2,300	
향군타워본부		-	2,500	12,000
휴게소사업본부		800	800	600
자산관리본부(사업개발)		4,600	1,000	-

21세기 화두는 개혁과 변화이다. 이러한 개혁과 변화에 우리 향군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추진한 향군 발전 1·2·3 운동은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옴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향군 비전을 갖게 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젊고 힘 있는 선진 향군’의 기치를 내걸고 추진한 ‘향군 발전 1·2·3 운동’은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3년 연말에는 현재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특히 잠실 향군타워 준공으로 연 200억 원 이상의 임대 수익이 확보됨으로써 보훈성금 300억 원 확보를 위한 3운동은 사실상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향군은 향군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 향군 발전 1·2·3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며, 목표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구호만이 아닌 회원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결집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 추진했다.

8 향군타워 준공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향군타워 건축(잠실 향군회관 재건축 사업)은 2002년 12월 VISION 2010 장기적인 재정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재건축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게 되었다.

구 잠실 향군회관은 향군회관 재산 가치에 비해 임대 수익률이 저조(향군회관 용적률 300%, 주변 건물 용적률 600%)했다.

또한 주변에 초고층 빌딩군으로 변모하면서 개발 지연 시 상대적으로 낙후 건물로 가치가 떨어질 우려와 함께 향군 산하업체의 사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향군의 재정 극복을 위해 향군타워 준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향군타워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사업 진행은 만만치 않았다.

다음과 같은 두 차례의 시공사 변경 등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야 비로소 착공 2년여 만에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가. 향군타워 첫삽을 뜨기까지 과정

- 2003. 11. 13 : 공동 개발 양해각서 체결(향군 + 하나은행)
 - 향군부지 4,668평 + 하나은행 부지 3,506평
- 2004. 2. 6 : 포스코건설 단독 응찰 및 낙찰
 - 향군 지분 매도금액 : 2,080억 원
- 2004. 2. 7 : 사업 중단(원로들 반대, 회원 항의, 임차사 민원 등)
- 2004. 5. 7 : 사업 중단 합의서 체결(향군, 포스코건설)
- 2005. 4. 22 : 향군회관 재건축 의결(제51차 정기 전국총회)
- 2005. 10. 19 : 설계업체 공모 및 선정(해안건축사 사무소)
 - 주상복합건물(아파트, 업무시설)
- 2007. 8. 13 : 주상복합 건축허가 취득(서울시)
 - 아파트 280세대 : 일반 분양
 - 오피스건물(13층 1동) : 향군 보유
- 2007. 10. 9 : 신동아건설 선정(경상이억 3,080억 원)
- 2008. 2. 28 : 신동아건설에서 사업 변경 요청(주상복합 → 토지매각)
 - 사유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이 어려운 실정, 오피스 유망
- 2008. 3. 28 : 구. 향군회관 철거 완료
- 2008. 4. 17 : 부지 100% 매각 의결(제2차 임시이사회)
 - 향군부지 신동아건설에 100% 매각
- 2008. 10. 29 : 부지 50% 매각, 잔여 50% 향군 소유 의결(제3차 임시이사회)
- 2008. 11. 18 : 대지 분할(신천동 7-13을 → 7-13과 7-29으로)
- 2009. 2. 16 : 회관 재건축 사업 변경안 전국 임시총회 의결(제55차)
 - 부지 절반(50%) 매각, 50% 향군소유 오피스빌딩 건립
- 2009. 3. 18 : 국가보훈처 사업 승인

제2편 테마별 역사

- 2009. 3. 25 : 부지 50% 신동아건설과 토지매매 계약 체결(토지비 2,640억 원)
- 2009. 6. 11 : 지상 30층 지하 6층 업무시설 건축 허가 승인(서울시)
- 2009. 8. 31 : 업무시설 공사 도급계약 체결(향군, 신동아)
 - 공사비 : 약 1,501억 원
 - 공사 기간 : 2009. 9~2012. 10(38개월)
- 2010. 6. 25 : 신동아건설 Work out 명단 발표
- 2010. 7. 1 : 계약 해제 통보(향군 → 신동아건설)
 - 신동아건설 토지매매 및 공사도급 계약
- 2011. 1. 25 : 입찰 : 삼성(태영), GS(한라), 대림(한화)
- 2011. 1. 27 : 심의 결과 및 통보
 - 우선 협상대상자 : 대림산업(한화건설) 컨소시엄
 - 예비 차순위 협상대상자 : 삼성물산(태영건설) 컨소시엄
- 2011. 2. 18 : 기본약정 체결(향군, 한화건설)
- 2011. 2. 28 : 공사 도급계약 체결(향군, 대림산업·한화건설)
 - 도금액 : 976억 원(공사기간 2011. 3~2013. 4)
- **2011. 3. 3 : 향군타워 착공식**

이와 같이 향군 잠실타워 재건축을 위한 입찰에는 국내 유수의 건설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향군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편성해 심의 후 대림산업-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재선정했다.

대림산업-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재선정함으로써 향군은 건설사의 재정적 안정성 및 시공의 우수성, 건설사 인지도 등으로 향군타워 건물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976억 원 공사 도급계약 결과 신동아건설 공사비 1,500억 원(기시공분 170억 원) 대비 354억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서 2011년 3월 3일 공사 착공식을 거행했다.

나. 착공에서 잠실의 랜드마크로 준공까지 경과

- 2011. 8. 24 : 한화건설 제안 주요내용
 - 토지비 : 1,915억 원(평당 8,200만 원)
 - 개발 이익 : 향군, 한화 각각 50%씩 배분
- 2011. 9. 5 : 한화건설 제안에 대한 향군의 최종 제안
 - 토지비 2,000억 원 이상(평당 8,600만 원) 매각
 - 개발 이익은 자본금 출자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
- 2011. 9. 9 : 향군, 한화건설 측에 B동 기본약정 해지 통보
- 2011. 9. 9 : 차순위 협상자인 삼성물산에 사업 참여 요청
- 2011. 9. 14 : 삼성물산 사업 참여 의향서 제출
- 2011. 11. 14 : 삼성물산·태영건설 기본약정 체결
- 2012. 4. 5 : 향군타워 B부지 개발사업 협약 체결
 - 향군, 삼성물산, 태영건설, 삼성생명
- 2012. 5. 9 : 잠실향군AMC(자산관리회사) 설립

- 2012. 5. 10 : 잠실향군PFV(특수목적법인)
- 2012. 5. 25 : 향군타워 B부지 토지매매 계약 체결(향군, 잠실향군PFV)
 - 계약 금액 : 1,827억 원
 - 토지비 1,967억 원 중 140억 원은 잠실향군PFV(주) 설립
 - 자본금으로 토지 현물 출자
- **2013. 3. 28 향군타워 준공**
- 2013. 4. 1 : 삼성SDS 외 임차사 입주
- 2013. 8. 30 : 잠실향군타워 B동 건물 매각(잠실향군PFV→삼성 SRA자산운용)
 - 매각 대금 : 3,889억 원(준공 후 건물 대금 지급)
- 향군타워
 - 내진 1등급 건축물
 -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인증 건축물
 - 태양광시스템을 도입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 초고속정보통신 1등급 인증 건축물
 - 송파구청 디자인대상 최우수건축물
- 향군타워 B부지 토지 매각 수익 증대(B부지 매각 토지비 1,967억 원)
 - 한화건설 제안한 1,914억 원보다 53억 원 수익 증대
- 향군타워 임차사 확보
 - 삼성SDS가 향군타워 5개층을 추가로 2014년 7월부터 10년간 임차
 - 국내 우수기업 유치 및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

이러한 과정을 거쳐 향군타워가 2013년 4월 5일 준공식을 갖고, 지난 2011년 3월 착공해 2년 만에 연면적 99,140.76㎡(29,99.08평) 지하 6층, 지상 30층 규모를 갖춘 잠실의 랜드마크로 우뚝 섰다.

무엇보다도 향군타워의 자랑할 만한 특징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대표적인 친환경 건물로 내진 1등급을 자랑하는 안전한 건물로 설계됐다는 것과 최첨단 자동화관리시스템을 적용한 인공지능형·에너지절약형 건물이라는 점이다.

최초 준공 예정일은 2013년 4월 30일이었으나, 공사 기간을 1개월 단축하여 임대 수익을 앞당겨 획득할 수 있는 성과도 얻었다.

이날 준공식은 국방부 군악대의 경쾌한 연주의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조형물 제막식, 기념 식수, 테이프 커팅 등의 야외 행사와 축하 리셉션 순으로 진행됐다.

조형물은 창공을 향해 날개짓하며 비상하는 4개의 석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국토 수호의 뜻과 육, 해, 공군, 해병의 위용과 용기를 담아 우리 겨레의 염원인 평화와 번영, 안전과 희망 속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향군의 미래 지향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 참가한 많은 이들이 안보성금을 기탁했는데, 공사 참여 기업인 대림건설과 한화, 선엔지니어링도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에 유용하게 써 달라며 성금을 기탁했다.

박세환 회장은 준공행사에 앞서 향군타워 재건축에 수고한 관계

관과 시공업체에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세환 회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850만 명 향군회원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향군타워는 준공까지 숱한 난관이 많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추진했다.”며 “재향군인회는 향군타워를 향군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국내 최대 안보단체 역할 수행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향군회원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향군 타워는 준공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의 성공 가능성만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박세환 회장을 비롯한 전 향군회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한 결과 명품 건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향군타워 준공으로 재향군인회는 연 200여 억 원 이상의 황금알과 같은 임대 수익을 얻게 되어 재정 안정에 크게 기여하며 향군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

또한 향군타워는 새로운 향군 60년을 시작하는 시기에 완공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향군의 새로운 60년 향군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향군타워는 준공을 계기로 향군이 호국안보단체의 구심점이 되어 앞으로 향군 경제 위기 극복의 초석이 되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향군 역사의 이정표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또한 2014년 5월 30일에 제2의 향군타워(B동)가 준공(2014.6.30 토) 지비 잔금 627억 원 및 자본금 140억 원 회수, 사업비 청산 후 잠실향군PFV, 잠실향군AMC 법인 해체)되어 재정 위기 극복에 기여하게 되었다.



▶ 향군타워 상량식(2012.3.6)



▶ 향군타워 준공식(2013.4.5)

9 재정 위기와 경영 정상화 추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상황은 '전작권 환수', '보안법 철폐' 등 안보 관련 문제와 언론 및 국회의원들의 향군 특혜 의혹 제기로 촉발된 노무현 정권의 향군 억압 조치로 2008년 말부로 '향군 수의 계약 중단 확정', '제2재향군인회 창설' 등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존립에 위기가 도래했다.

이에 맞서 향군은 노무현 정권의 향군 억압 조치에 맞서는 한편 '전작권 환수 반대', '보안법 철폐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을 국내외에 전개하고, 향군 각급회는 물론이고 관련 단체들이 안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향군의 목적사업인 안보활동에는 많은 경비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 많은 경비를 짊어진 기간 내에 확보하기 위해서 향군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전개했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과 향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2011년 8월 MBC 보도로 향군에 대한 금융권의 위축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2012년 하반기에 향군은 잠실 향군타워의 건축자금 및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위하여 은행권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모든 은행에서 거절되었으며, 파격적으로 고금리 조건을 제시하여도 자금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2012년 말부터 여의도 금융가에서는 향군의 파산 또는 법정관리가 임박하였다는 소문이 공공연하였으며, 또한 관리감독 당국인 보훈처에서도 최악의 사태를 준비할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2013년 2월에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향군의 재산이 강제집행 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며, 잠실 향군타워 건축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는데, 은행권에서는 신규 대출은 고사하고 기존 대출금의 연장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최악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전문가를 경영고문으로 영입하여 2013년 4월에 3,500억 원의 장기 저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일단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으나 아직도 여전히 과도한 부채로 인한 재정 위기는 잔존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재정 위기가 닥쳐온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살펴 기록함으로써 교훈으로 남기려 한다.

가. 재정 위기 발단 원인

향군 재정 위기의 발생 원인은 크게 보아 사업개발본부의 무리한 부동산 개발 투자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려 큰 손해가 발생했고, S&S사업본부 U-케어사업단장의 범죄 행위로 인한 거액의 자금 수요,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등급 하락과 신규 대출 중단으로 볼 수 있다.

(1) 사업개발본부 설립

향군은 회원의 복지 증진과 안보활동 등 목적사업의 경비 조달을 위하여 회법 제4조의2(사업)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중앙고속 등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목적사업의 소요 예산 증가로 수익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0년 8월 18일 제4차 이사회 의결로 향우용역주식회사를 해체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군 개발사업본부'를 편성했다.

향군개발사업본부는 '사업개발본부'와 '용역사업본부'(이후 S&S사업본부로 개칭)로 나누고 사업개발본부는 부동산 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S&S사업본부 소속 U-케어사업단장의 불법 행위로 이어지면서 은행 차입금이 증가하게 되면서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급기야 2011년 8월 MBC PD수첩에 '향군 부도 위기', 2012년 6월 22일 중앙일보에 '향군 부채 5,000억 원, 재정 부실' 등이 보도되면서 향군의 재정 위기는 대외적으로도 알려지게 되었다.

사업개발본부 역대 본부장

1대 (2004.1.1~2006.7.18)	2대 (2006.6.26~2010.12.31)	3대 (2010.12.25~2012.9.19)
원형재	윤여일	예병주

※ 사업개발본부는 2012.9.19일부로 폐지되고 신설된 자산관리TFT(본부장: 신현정)으로 부실 사업장의 정리 업무가 이관됨.



▶ 산하업체 실적 보고(2006.11.17)



▶ 재무개선위원회 위촉(2011.9.28)

2011년 8월 15일 MBC 보도 내용

〈MBC 보도〉

8백만 명의 회원이 속해 있는 재향군인회가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부채가 5천억 원이 넘어서, 자칫 파산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막 : 2,898억 원 은행 차입금, 2,700억 원 단기성 어음 발행)

은행 빚이 무려 2,898억 원에,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성 어음도 2,700억 원이나 됩니다. 둘을 합친 총 부채는 5천 6백억 원, 하루 이자만 1억 원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된 것일까요?

재향군인회는 지난 2007년 이후에만 아파트와 오피스텔, 리조트 등의 수익사업을 16개나 벌였습니다. 게다가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신용등급을 내리는 바람에 만기 연장도 쉽지 않습니다. 다음 달 480억 원, 10월 410억 원 어음만기가 도래합니다. 지난해까지 19층짜리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아직도 파기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지난 2007년부터 이곳에 260억 원을 투자했지만 공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자막 : 경남 창원시의 한 공터)

재향군인회가 7백억여 원을 투자한 경기도 안산의 물놀이시설, 3년 전 완공됐어야 할 이곳도 역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자막 : 00워터파크)

한 회계법인은 재향군인회 부채 중 2천억 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2011년 8월 MBC 보도 당시 6,287억 원 부채

(2) 사업개발본부의 무리한 부동산 개발 투자

2005년부터 시작된 언론 및 국회의원들의 특혜 의혹 제기로 촉발된 참여정부의 향균에 대한 억압 조치 일환으로 2008년 말부로 향균 수익계약 중단이 확정되자, 향후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불안감을 느끼게 된 향균은 부동산 개발 등 수익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당시 부동산 경기 붐을 타고 무리하게 투자 규모를 확대하게 되었다.

여기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금융사업(PF: Project Financing)을 한 것이었다. 즉 향균 명의로 은행에서 빌린 금리가 짙 자금을 개발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완공 후 발생될 이익을 보훈성금의 명목으로 미리 선취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초기에 착수한 몇 개의 사업장에서는 이익을 냈으나 2007년부터 시작된 건설 경기 하락과 2009년 외환 위기로 건설사 및 시행사들은 물론이고 건설자금(PF)을 지원하던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향균 역시 자금 압박에 몰리게 되었다.

사업개발본부의 부동산 투자 현황

회장	이상훈	박세직		박세환	
본부장	원형재	윤여일			예병주
투자 기간	04.12~06.7	06.12~07.12	08.1~09.9	09.10~10.12	11.1~11.8
사업 내용	대전골프 연습장	대전골프 연습장	대전골프 연습장	대전골프 연습장	대전골프 연습장
	우면산터널	우면산터널	우면산터널	우면산터널	우면산터널
	보령골프장	보령골프장	보령골프장	보령골프장	보령골프장
	아산 복합시설	아산 복합시설	아산 복합시설	아산 복합시설	아산 복합시설
	[4개 잔여 사업]	성북동 빌라	성북동 빌라	성북동 빌라	성북동 빌라
	화성동탄 아파트	울산온양 아파트	울산온양 아파트	울산온양 아파트	울산온양 아파트
	신문로 재개발	울산연양 아파트	울산연양 아파트	울산연양 아파트	울산연양 아파트
	일산탄현	수원구운동 아파트	수원구운동 아파트	수원구운동 아파트	수원구운동 아파트
	보령소각로 지분	부산민락동 사업	부산민락동 사업	부산민락동 사업	부산민락동 사업
	부산연산동	창원 상남동	창원 상남동	창원 상남동	창원 상남동
	김포공무동	울지로업무 시설	울지로업무 시설	울지로업무 시설	울지로업무 시설
	대구남산동	[07년 7개 사업]	부평 복합상가	부평 복합상가	부평 복합상가
	울산천곡동	광장동주상 복합	성신양회 자산인수	성신양회 자산인수	성신양회 자산인수
	백현유원지 지분	[1개 완성 사업]	신월동복합 상가	신월동복합 상가	신월동복합 상가
	해남석산		논산복합상가	논산복합상가	논산복합상가
	[10개 완성 사업]		평택아울렛	평택아울렛	평택아울렛
			안산체육시설	안산체육시설	안산체육시설
			정선리조트	정선리조트	정선리조트
			[08년 7개 사업]	태백아파트	성산동 오피스텔
				[10년 1개 사업]	[11년 1개 사업]
차입금 계	867억 원	2,183억 원	4,584억 원	5,364억 원	6,287억 원
증감		1,316억 원	2,401억 원	780억 원	923억 원

※ 붉은색 표시 : 정상적으로 종결된 사업장, 청색 표시 : 매각이 완료된 사업장(총 8개 사업장)

※ 노란색은 투자 시기를 표시함

(3) 부동산 개발 투자의 부실화 원인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업무 통제 및 분석이 미흡하였다.

□ 부동산 경기의 하락

- 건설 경기 하락으로 시행사·시공사의 부도 및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 중단 초래

제2편 테마별 역사

- 사업 부실을 만회하기 위해 부도난 시행사를 대신하여 새로 선정한 시행사가 제2금융권 등에서 추가로 대출 받을 때 향군이 신용 공여를 하였고, 이를 나중에 대위변제하는 악순환을 반복
-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투자금의 손실 발생에 대하여 적기에 손절매 등을 통한 회수를 못함.
- 부동산 경기의 하락 시점인 2007년(10건), 2008년(5건)에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손실 초래
- 향군 내부의 문제점
- 사업성 분석 및 업무 통제 기능 미흡
- 편성 초기(2010년 2월까지)에는 기획관리실 사업관리부의 업무 통제를 받지 않고 업무 취급(2011년 1월 이후 통제)
 - 투자사업의 내용을 참모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했어야 하나, 대부분을 사업개발본부 주도로 추진
 - 본부 이사회에 자금 차입안 상정 시에도 세부 사업 추진 내용 없이 차입 금액의 총액만 상정 후 의결하는 경우가 많았음.
 - 독립채산제라는 이유로 많은 부분에서 보고가 생략되어 자금의 흐름을 지휘부에서 확실히 알 수가 없었음.
-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 부족 및 사업성 분석 미흡
- 사후 관리 미흡
 - 담보물 초과되는 사업장 대출의 경우에도 관리 소홀
- 부서장이 사업에 대한 부실 여부를 보고함에 있어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휘부의 상황 판단을 흐리게 하여 대처 시기를 놓침.
- 사업성 검토의 미흡
 -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물론 후에 건설 경기 불황으로 대출해준 시행사가 부도난 경우에도 다른 시행사를 선정하거나 직접 시행을 시도하면서 추가 대출을 계속해 부실의 규모가 커진 사례 다수

(4) S&S사업본부 산하 U-케어사업단장의 범죄 행위(BW사건)

- 사건 개요
- 2011년 4~5월 향군 S&S사업본부(본부장 박주천) 산하 사업단 중 하나인 U-케어사업단(단장 최부용)이 제안한 아래 4개 업체의 BW(Bond with Warrant 신주 인수권부 사채) 790억 원 발행에 대한 지급보증 건을 당시 S&S사업본부장이 향군 본회의의 정당한 수권 절차 없이 추진함. 즉 수익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회장 재가 없이 향군 명의로 지급 확약서 등을 KTB투자증권 앞으로 발급, 이때 입찰 참가 용도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물품 공급 계약 및 지급 확약 등의 용도로 변조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인감증명서도 사용 용도에 대한 기재 내용을 보증용으로 변조

BW 발행 회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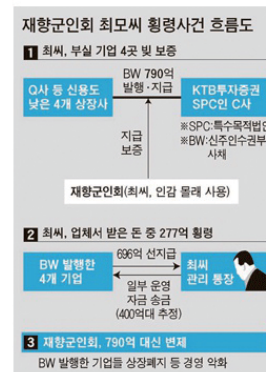
구 분	G&D 원택	우경	글로벌텍	큐리어스
설립일	98. 6. 5	84.12.31	76.7.7	88.12.20
상장일	2003.1.6 (코스닥)	1995.7.31 (코스닥)	1989.9.29 (코스피)	2001.8.2 (코스닥)
현 황	• 상장 폐지 : 2011.11.12	• 상장 폐지 : 2013.7.10	• 상장 폐지 : 2013.6.4	• 상장 폐지 : 2012.11.27

BW 발행 횡령 관련 중앙일보 보도(2012. 6. 22)

도장 하나 때문에 ... 곳간 텅빈 향군

[중앙일보] 입력 2012.06.22 03:00 / 수정 2012.06.22 03:00

사업단장이 잘못 선 보증 대납
사업단마다 향군회 인감 가져
횡령 최씨, 본부 몰래 지급보증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부른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 수사로 21일 드러난 재향군인회의 '790억원 변제 피해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군이 문어발식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 등 각종 수익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향군이 '브랜드 네임'을 빌려주고 보증금 등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행기는 이른바 '대명(貸名)사업'의 실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G사 등 4개 상장회사가 KTB투자증권 SPC(특수목적법인)인 C사에서 대출받은 790억원 중 27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씨는 향군 S&S사업본부 산하 U-케어 사업단장이었다. S&S 사업본부는 고속도로휴게소사업 본부 등과 함께 향군의 5개 직영사업 중 하나다. 향군의 한 관계자는 "이곳은 특정한 사업을 정해 두지 않고 그때그때 조직의 먹거리를 찾아서 사업을 추진한다"며 "유명한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씨는 실제 사업보다는 잭팟에 관심이 더 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장회사 대표들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도가 낮아 운영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장회사 4곳에 향군의 지급보증을 해줘 각각 130억~310억원을 대출받게 주선했다. 그 대가로 상장회사와 물품매매계약을 맺어 대출금 중 700억원가량을 선금금으로 받았다. 최씨는 이 중 400여억원은 4개 상장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277억원은 향군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해 놓고 수시로 빼내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씨는 지급 보증을 할 때 평소 입찰 등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 갖고 있던 향군의 사용인감을 몰래 사용했다. 이런 사용인감은 10여 개에 이르는 사업단이면 대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부실 및 편법 대출이 상장회사들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대출금 160억원 중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운영자금으로 70억원을 손에 쥐었던 G사는 지난 1월 상장폐지됐고 W사는 지난 3월, Q사는 5월에 각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또 다른 G사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 대위 변제

- 2012년 4월경 KTB투자증권에서는 G&D원택의 상장폐지 등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로 위 4개사의 보증인인 향군이 대위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왔는데 향군에서는 당시 지급보증서 등이 정당한 수권 절차 없이 발급되었고, 이를 KTB투자증권 측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지급보증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대위 변제에 대하여 강한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 당시 향군은 KTB투자증권으로부터 상당한 금융 지원(직접차입 600억원, 보증채무 375억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상환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본 건으로 KTB투자증권이 금융을 연장시켜주지 않고 향군 자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할 수 있고, 향후 다른 수익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지급보증 등의 효력 유무를 가리는 법적 소송을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KTB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일단 대위 변제를 하고 향후 KTB투자증권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책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
- 이에 따른 대위변제금액은 4개사 최초 발행된 BW 원금 790억 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870억 원
- U-케어사업단의 사고 발생 원인
- 사업- 향군내부의 수권 절차 미비
 - U-케어사업단장(최부용)의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수권 절차 미 이행 등)
 - 법인인감증명서 및 대외 입찰 참가 용도로 발급한 '사용인감증명서'를 U-케어사업단장(최부용) 임의로 '재향군인회 명의의 지급 약속서' 용도로 제출
- S&S사업본부장 및 담당 직원의 업무 처리 미숙
 - 사업성 검토 등 사업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사업 추진을 승인(개발단장 및 담당부장 보직해임)

(5) 석탄사업의 부실

- 사업추진 내역
 - 2010.9: (주)부화림으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석탄무역사업' 제안, 2010.12.30: 향군과 (주)한국서부발전, 석탄공급 계약 체결
 - 인도네시아 현지 석탄확보 실패(3차례)로 용선료 손실(11억 원), 석탄 공급 실패에 따른 위약금(패널티) 배상
- 사업추진 문제점 및 손실액
 - 사업 제안자인 (주)부화림의 회사 재정상태 검토와 사업 수익성의 전문가 분석 없이 비전문가가 사업 추진
 - 2011년 8월말 최종 석탄 공급 실패에 따른 손실액 69억 원
- 후속조치 : 사업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 중

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 (1) 재정 위기 감지 후 조치 사항
 - 사업개발본부장 교체(2010. 12)
 - 사업개발본부 안세환 부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이 되는 등 사업개발본부의 부실 징후가 감지되어 박세환 회장은 윤여일 본부장을 예방주 당시 비서실장으로 교체
 - 신입 본부장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실 정도가 심각함을 발견하고 삼일회계법인에 각 사업장별로 경영 진단을 의뢰함과 동시에 감사실에 사업개발본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
 - 업무 파악과 함께 부실의 원인과 규모 등을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2011년 8월 15일 MBC 보도
 - 삼일회계법인의 각 사업장별 경영 진단 종료 후 그 결과를 지휘부에 보고(2011.2~4)
 - 감사실 감사 실시(1차 2011년 7월, 2차 2011년 9~10월)

(2)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

- 2011년 9월 제3차 이사회에서 그동안 준비하였던 '재무 건전화 종합 대책안'을 의결
- 사업 부실 초래자 민형사상 책임 규명(직원 6명, 시행사 21명 검찰에 고발 조치)
- 향군에 대한 재무 진단 실시 후 재무 건전화 계획 수립
- 재무 구조 개선 위원회 설치(행정명령 제305호, 2011.9.1.)
- 정관 변경 : 제 4조 2항 2호 금융 및 보험업 삭제(신규사업에 대한 PF자금 지원 금지)
- 국가보훈처 감사(2011.10.31~11.18) 수검 시 지적 사항
 - 부동산 투자 사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부적정
 - 유동성 관리 부적정
 - 회계 관리 부적정
 - 석탄무역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부실
 - BW 발행 시 지급 약속서 부정 발급
- 향군 개혁60위원회 편성, 개혁 추진(2012.4.30~12.31)
 - 사업장 매각 및 금융이자 절감 및 대책 강구
 - 조직 구조조정, 인적 쇄신 및 예산 절감
 - 부실 사업 정리, 석탄사업 등
 - 수의계약 기간 연장
 - 위례신도시 회관 건립 : 부지 1만 평 확보(국방부와 MOU 체결) 등
- 향군 재정안정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2012.7.12~향군 재정 안정화 단계까지)
 - 사업개발본부의 사업장 매각 등 자금 유동화 확보
 - U-케어사업의 채권 확보 및 관재 업무 수행
 - 대내(대의원, 이사, 자문단 등)와 대외기관(국회, 감사원, 보훈처) 등과 유기적인 협조
 - 대언론 대응 및 대책 강구
- 향군발전특별위원회(2013. 4. 2~2014. 3 현재)
 - 향군 법규, 제도 등 운영 체계 개선 등 중장기 비전 제시
 - 차입 자금 운용과 통제 방안
 - 산하업체 경영 효율 극대화 방안
- 박세환 회장 재무 개선 원칙 천명(각종 회의 시)
 - 제1원칙 : 고금리 단기 차입금을 저금리 장기 직접채무(은행 채무)로 전환할 것
 - 제2원칙 : 부실 사업장의 조기 매각으로 채무 원금을 상환할 것
 - 제3원칙 : 신규 사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여 차입금의 추가 발생을 억제할 것

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

- 2011.10.1 : 경영총장제도 도입 시행(2011.9.27, 행정명령 306호)

제2편 테마별 역사

-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모두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있었으나 목적 사업은 사무총장, 수익사업은 경영총장이 관장하도록 조직 개편
- 초대 경영총장을 최종인(서울상대 줄, 두산그룹 부회장 역임)으로 임명하여 산하업체에 대한 경영 효율화로 수익 증대 도모
- 외부 전문가 초빙(2011.9.1~)
 - 향군 이사회 및 재무구조 개선위원회에 변호사, 회계사, 금융 전문가, 감정평가사, 경영컨설턴트 등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이사 및 위원으로 위촉
- 수익사업 구조 조정(2012.9.20 시행)
 - S&S본부 해체 : 종합사업본부 및 자산관리 TFT로 전환
 - 사업개발본부 해체 : 자산관리 TFT 및 성수개발사업단으로 전환
 - ※ 자산관리 TFT는 부실 사업장 매각과 BW 관련 채권 회수 업무만 전담
- 회계법인 활용
 - 삼일회계법인의 재무 진단 실시(2011.9~2012.1)
 - 재정회계법인 회계 감사(2013.9.13~12.7)
 - 향군사상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 실시
 - 자산 매각 주간사 선정
 - 삼일회계법인(2011.9~2013.5)
 - LIG투자증권(2013.6~2014년 3월 현재)
- 자산 매각 현황(2011년~2013년)
 - 매각
 - 2011년 : 우면산터널 지분, 성신양회 지분
 - 2012년 : 을지로 업무시설, 마포 오피스텔, 대전 골프연습장, 울산 온양아파트
 - 2013년 : 수원 구운동아파트, 울산 언양아파트, 창원 상업용지
 - 잔여 사업장 및 층주호 매각 추진 중
-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 U-케어사업단장 최부용은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 중
 - KTB투자증권에 대한 소송 제기
 - 향군 명의의 지급보증 등 서류는 향군 내부의 적법한 수권절차 없이 발행된 것이며, KTB투자증권 측에서는 U-케어사업단장 최부용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는 이유
 - BW 발행 4개사는 경영 부실 등으로 모두 상장 폐지되었으며 1개사(큐리어스: 글라소울로 개명)만 현재 영업 중
 - 최부용이 은닉하였거나 BW 발행 4개사가 투자한 자산을 조사하여, 향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 진행 중(총 32건)
 - 2012년 4개사의 보증인(티모이엔엠)에 대한 보증 채무 이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3년에 115억 원을 회수하고 2014년에 120억 원을 회수 예정
 - 2013년 12월까지 BW 관련 총 회수 금액은 현금으로 112억 원이며 기타 담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현재 환가 중

□ 수익계약 여건 개선 노력

- 과거 정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010년)
 - 개정 목적 : 재향군인회와 군인공제회 수익계약 종료 유도
 - ‘부칙’ 신설
 - 2015년 말 부로 향군을 포함, ‘특별법인’ 수익계약 종료 법제화
 - 향군은 수익계약 사업 종료로 수익사업 기반 붕괴 위험성 대두
- ‘부칙’ 개정을 위한 노력
 - ※ 2014~2015년 말까지 기준 금액 및 연도별 삭감 조항 폐지
 - 기획재정부에 관련법 ‘부칙’ 개정 요구(최초) : 2012년 초
 - ‘부칙’ 개정을 위한 노력(청와대, 정부기관, 국회 등을 방문 건의)
- 2013. 11. 8 : ‘부칙 개정(안)’ 입법 예고(2014.1.1. 시행)
 - 주요 내용
 - 2015년 말부 수익계약 종료(변동 없음)
 - 수익계약 기준 금액 통합 및 연도별 삭감을 조정

구 분	~에서	~으로
기준금액	각 중앙관서별 별산	보훈처 통합 관리
삭 감 율	매년 30%씩 삭감	2014년 20%, 2015년 30% 삭감

- 향후 조치
 - 2015년 말 수익계약 종료에 대비, 경쟁력 강화 등 최선의 자구책 마련

라. 2012년 유동성 위기 도래

- 은행권의 신규 대출 억제
 - 언론에서 향군의 부채에 대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보도되고 실제로 향군에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자 금융기관에서는 향군에 대한 신용등급을 낮추게 되고 이에 따라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금의 연장까지도 힘들게 되어 결국 유동성 위기에 봉착
 -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박세환 회장이 직접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되었고, 다시 외환은행을 방문 설득 1,000억 원을 차입하는 데 성공하여 급박한 기존 부채 상환 등에 충당
- 은행권의 대출금 관리 강화
 - 2012년 하반기에 이르자 은행권에서는 향군에 대한 자금 긴축을 더욱 강화하고, 일부 채권의 강제 회수에 돌입(국민은행은 1,000억 원 대출을 138억 원으로 감축하였으며, 외환은행은 월 단위로 대출금의 연장 심의를 하면서 관리함)
 - 은행권에서는 담보의 유무나 금리의 고하를 떠나서 아예 향군의 신규 차입 신청 자체가 거부되었고 기존 채무 연장 시에도 일부 자금의 내입을 요청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제2금융권(KTB 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을 통해 단기 고금리 차입금으로 시급한 자금 부족을 충당 중
 - 2012년 11월 메리츠증권에서 잠실 B부지 매각 채권 유동화 형식

으로 627억 원을 차입하여 겨우 지탱하였음(연 이자율 6.5%, 금융 수수료 연 1.02%, 후취 환산 시 총 8.9%, 잠실 A부지 후순위 담보 제공).

- 당시 여의도의 금융가에서는 향군의 부도 및 법정관리에 관해 소문이 무성하였음
- 2012년 말 재무 상황
- 부채 현황
 - 총 6,815억 원(1년 이내 상환해야 할 단기 차입금 89%, 평균금리 약 6.85%)
- 2012년에 중앙고속 등 산하업체의 수익금이 220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출은 목적사업 비용 약 220억 원, 차입금 이자 비용도 519억 원에 달하여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부실 사업장 매각은 지지부진하였고, 금융권의 원리금 상환 압박은 더욱 거세져 결국 빚을 내서 빚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실정
- 2012년 12월 21일 이사회 논의(8호 안건)
- 위와 같은 절박한 유동성을 일시나마 해결하고 잠실타워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경영본부에서는 삼일회계법인과 협의하여 메리츠증권에게 향군이 갖고 있는 13개 사업장을 일괄 조건부로 매각하고(미 매각분은 향군이 재매입), 잠실 A부지와 중앙고속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2,550억 원의 금액을 차입하는(연 이자율 6.5%, 연 금융수수료 2.5%, 후취 환산 시 10.4%) 8호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
- 이사회는 격렬한 토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여 일단 정회하고, 12월 24일 다시 속개하기로 결정
- 당시의 의견은 2013년 초에 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확실시되고, 향군타워 건립이 무산될 지경이므로 8호 안건의 사업장 일괄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이 건은 자금 조달 조건이 너무 나쁘고, 또 이 건을 취급할 경우 일시적으로는 유동성 압박을 면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이상의 대책이 없어 결국 향군타워와 중앙고속을 메리츠증권에 넘기게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정회
- 박세환 회장은 정회 기간 동안 여러 금융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는 금융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8호 안건을 능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이사회의 속회를 취소하고 2013년에 새로운 이사회를 개최 예정
- 주원태 경영고문 영입(2013.1.1. 임명)
- 회장은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금융 전문가를 물색한 결과 서울법대 출신으로, 외환은행 임원을 역임했던 주원태 고문을 영입하여 향군 유동성 문제 해결을 일임하도록 조치
- 신규 대출 추진
- 2013년 1월 주원태 경영고문은 ‘제1금융권에서 신축 중인 잠실 향군타워 및 중앙고속 주식을 담보로 3,500억 원의 신규 대출을 받는다’는 목표를 추진
- 금융 자문사를 삼일회계법인에서 삼덕회계법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외환은행을 금융 주간사로 하여 몇 개의 금융기관이 공

동으로 대출하는 협조융자(Syndicated Loan) 방식을 택하여, 금융 기관들을 방문, 대출 조건을 협의

- 한편, 박세환 회장은 경영고문을 대동하고 2013. 2. 1 외환은행을 방문, 은행장을 면담한 후 부장, 팀장까지도 자리로 찾아가서 신규 대출을 간곡히 요청
- 유동성 위기 심각
- 금융재무팀은 매일매일의 부도 위기를 면하고자 각 금융기관을 순회 방문하면서 기일 연장 교섭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나 유동성 위기는 더욱 악화되어 2013년 2월경 8억 원의 자금이 부족하여 향군 자산에 강제집행 실시
- 대출 약정 체결
- 대주단과 피를 말리는 협상 끝에 2013. 2. 28 외환은행을 비롯한 3개 금융기관(대주단)과 3,500억 원의 신규 대출에 관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그러나 실제 대출 실행은 잠실 향군타워 준공과 메리츠증권의 담보 해지 후에야 가능했음)

– 금액 : 3,500억 원
 – 대출 기관 : 외환은행 1,000억 원
 동양생명보험 1,000억 원
 향군타워 제1차 유한회사(새마을금고연합회) 1,500억 원
 – 기간 : 5년
 – 이율 : 4.64%(매월 후취, 고정금리)
 – 금융 수수료 : 연 0.16%(감정평가료, 저장권 설정 비용 등 포함)

- 700억 원의 가교대출(Bridge Loan) 실행
- 2013년 3월 초 잠실 향군타워 건축비에 충당할 긴급 자금이 부족하여 2013년 3월 부산은행을 비롯한 4개 은행에서 700억 원을 가교대출(Bridge Loan, 위 3,500억 원을 대출 받는 즉시 상환하는 조건임) 형식으로 대출
- 잠실 향군타워 준공
- 2013년 4월 5일 향군의 숙원사업이었던 잠실 향군타워가 준공되어 자산가치가 약 2,000억 원이 증가된 약 4,850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30층 모두가 임대될 경우 임대료 등으로 매년 약 240억 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향군 재정 위기 해소에 결정적으로 기여
- 신규 대출 3,500억 원 실행
- 2013년 4월 23일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젖던 3,500억 원의 협조 융자가 KTB, 메리츠 등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실행되어 여의도 금융가에서는 ‘기적’이라고 평가
- 즉 당시 향군에서 접촉했던 30여 개 금융기관 중 대다수가 향군의 신용 상태 및 향군이 초빙한 주원태 경영고문의 과거 경력(IMF시절 구조조정의 전문가)으로 보아 향군의 법정관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판단, 처음부터 아예 문을 닫고 있었음

- 3,500억 원 대출의 효과
- 당시 대출금 6,834억 원(2013년 1월 말 현재)의 약 50% 상당을 5년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유동성 관리에 절대적으로 유용
- KTB투자증권 등의 고금리(최고 9% 이상)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연간 이자 비용 약 67억 원 절감(2013년 1월 말 기준 평균 대출금리 6.57%)
- 향군의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 만기 연장 시 금리 협상에 유리(2012년 말 평균 금리 6.85%에서 2013년 말 평균 금리 5.06%, 전년 대비 약 203억 원의 이자 비용 절감)

마. 현재 상황

(1) 재정 위기 상존

- 향군의 현 재무상황은 비록 3,500억 원의 신규 차입금의 유입으로 급박한 유동성 위기는 모면하였으나 이는 단기 고금리 대출금을 장기 저리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며, 향군의 재정 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아님.
- 즉, 현재 향군의 부채 규모나 영업 수지 등을 감안하고 수면 밑에 있는 위험 요소들까지 포함하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

(2) 상존하는 위험 요소

- 김포 한강철책사업
- 향군이 삼성SDS와 공동으로 20억 수주한 김포 한강철책사업이 계약 불이행(내부 약정상으로는 삼성SDS 해당분)을 이유로 2013년 9월 13일 김포시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향군은 5개월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은 물론 일체의 모든 계약에서 입찰 자격을 박탈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고, 계약 이행을 보증한 서울보증의 청구에 대하여 현금을 공탁하여 제재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이에 향군은 법원에 김포시의 위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부정당업체로 지정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받아 15일 만에 다시 입찰에는 참가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본안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이 요구됨.
- 공사비 미지급 등
- 공사 및 영업이 중단된 사업장에서 거래 상대방 또는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미지급금이 있을 수 있고, 또 공동 투자사업에 있어서 다른 투자자의 손실 보상 요구도 있어 처리에 상당한 비용 예상
- 수의계약 종료 예상
- 그동안 향군 수익에 큰 기여를 한 군납 등 수의계약의 물량이 2014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하여 2015년 말이면 완전히 종료됨.
- 회계 정리 문제점
- 향군은 2013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외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실 사업장에 대한 대출금의 손실 규모는 아직 개별적으로 미확정

□ 기타 부실 사항

- 부동산 개발 투자 이외의 기타 사업 또는 종합사업본부 사업단의 청산에 따른 우발 채무 부담 가능성도 있어 이를 대비 필요(향군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음).
- (2) 수익 증대 방안 추구
- 산하업체에 대한 경영 효율화 도모(보훈성금 납부 전 이익 규모)
- 2012년(220억 원), 2013년(179억 원), 2014년(244억 원)
- 향군 상조회 영업 활동 강화
- 향군의 각 급회를 활용한 회원 증가 노력으로 수익 증대
- 중앙고속 관광사업 활성화
- 각자 대표제로 전환 관광사업본부를 독립 재산제로 운영
- 위례신도시 10,000평 기부채납 활용 방안
- 신규 사업 검토
- 향군의 장점과 출자 등이 최소화되는 사업 참여

(3) 재무 상황

- 향군의 차입금 현황
- 2013년도 차입금 규모는 5,988억 원으로 앞으로 사업장 매각, BW 관련한 채권 회수, 잠실 B동 완공에 따른 수익금 및 산하업체의 수익을 감안하여 2014년 말에 4900억 원, 2015년 상반기 4700억 원의 목표 수립
- 자금 수지 현황
- 2012년에는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나 2013년에는 잠실 향군타워가 준공되어 임대료 등이 82억 원이 추가되었고, 반면에 차입금 총이자 비용은 316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2014년에는 향군타워로부터의 수입이 188억 원이 되고, 차입금 이자는 300억 원으로 감축되게 되며, 2015년에는 수익금은 240억 원이고 이자 비용은 238억 원이 예상되어 비로소 향군의 재정 자립, 경영 정상화 가능성

(4) 자금 수지 예상

- 잠실 향군타워가 모두 임대되어 수입이 240억 원이므로 대출금 원금 약 4,700억 원(2015년도 하반기 목표)에 대한 이자 부담이 가능하므로 그때 가면 산하업체 수익금으로 목적사업 비용을 충당하고, 잠실 향군타워 임대료로 차입금 이자를 충당하게 되어 향군의 재정이 안정적

(5) 경영 정상화의 가능성

- 향군이 자존심을 포기하면서까지 향군타워로 본회를 이전하지 않고 경비를 절감하기로 한 임직원의 결단과 각급회의 동참의 지로 보아 경영 정상화는 반드시 달성 가능

10 위례신도시 향군 복지타운 건설

군부대 주둔 지역인 남성대 지역에 위례신도시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특수전사령부와 종합행정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국군체육부대, 210기무부대가 타 지역으로 부대 이전을 하게 되었다.

당 지역 명칭인 남성대(南城臺)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8년 성남시 창곡동에 행정학교와 군수학교를 이전시키면서 병자호란의 치욕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하달한 뜻 깊은 휘호이나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40여 년을 주둔하던 부대의 발자취가 없어지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향군은 「군의 요람」 지역인 남성대에 예비역 대표 조직인 향군회관을 건립하여 이곳을 거쳐간 많은 예비역들에게 향수를 고취시키면서 군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하자는 취지에 국방부, 국토해양부, 토지공사 등 정부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향군회관 건립 부지 1만 평을 확보하고, 향군타운 건립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게 되었다.

가. 위례신도시 향군타운 건립을 위한 추진 실적

- 2005. 8. 31 : 최초 ‘송파 신도시’로 명칭
정부에서 개발계획 발표 시 송파 신도시로 호칭하였으나, 신도시 내 행정구역이 서울시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 3개 지역이 공유하고 있어 송파 신도시 명칭에 대해 성남시와 하남시가 반박을 하면서 갈등 야기
- ※ 이후 2008. 7. 31 ‘위례신도시’로 명칭 변경, 위례는 ‘큰 고을’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옛 백제의 시발지로의 역사적 명칭을 되살려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신도시로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상징성을 내포
- 2008. 5. 30 : 향군회관 부지 확보 요청 문서 발송
향군은 향군 복지타운 건립 부지 확보 건의 문서 작성하여 국방부로 발송
- 2008. 6. 18 : 국방부와 업무협약
향군 사업개발본부장이 사업담당부장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방문하여 업무협약의 내용
- ※ 국방부에서 국토해양부로 공문을 발송하여 향군회관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나 공문서 상에 향군부지로 표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국방부에서 향군으로 부지 전환 문제는 실무 검토하여 추후 결정 예정
- 2008. 6. 20 : 향군회관 부지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실무 검토 결과 국방부 통보
향군회관 부지의 용도를 예비역 단체 회관 건립용 부지로 용도를 한정하여 매각토록 하는 지명경쟁입찰로 추진하거나, 위례신도시 내 국방부가 건립 예정인 5천 세대 중 예산 부족으로

건립이 불가한 2천 세대의 일부를 향군회관 부지 매입 비용에 해당하는 세대를 신축하여 국방부로 기부하면 향군 회관 부지를 국방부에서 향군으로 양여하는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제시

- 2008. 7. 1 : 향군 사업개발본부장과 사업담당부장이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과 신도시개발과장, 토지공사 특별사업본부장과 미팅하여 향군회관 건립 부지를 용도 명시하여 조기 할당할 것을 요청
- 2008. 7. 10 : 국방부로 협조 문서 발송
향군회관 부지 확보를 위해 국방부에서 국토부로 부지 추가 할당 요청
- 2008. 7. 17 : 국방부에서 국토해양부로 공문 발송(공문 내용은 아래 참조)

기본협약서 제7조에 명기된 군 복지시설 부지 약 27만 평 중 귀부에서 계획한 실사용 가처분 면적 약 8.2만 평으로는 국방 복지시설을 건립할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장차 군(軍) 예비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제대군인 등 관련 단체의 회관 건립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여 1만 평을 요청하오니 국방부 업무용 부지로 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 7. 29 : 향군 대외협력관과 담당부장이 국토부 토지정책관신도시개발과장과 담당관 방문
국방부로 공문 회신 시 국방부 표기 내용 명시를 협조 요청
- 2008. 7. 30 : 국방부 요청 부지 추가 할당 가능 회신(국토해양부→국방부)
- ※ 국토부 회신 문서에는 국방부 추가 요청 부지는 기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차후 적정 위치와 규모를 국방부와 협의하여 반영할 계획 명시
- 2009. 10. 14 : 향군회관 부지 위치 선정 조건 관련 국방부 제안
※ 조건 : 역세권, 고층 건립 가능 지역, 부지가 저렴
- 2009. 11. 10 : 향군회관 부지 예정 위치 선정 - 특전사 라이프주택 인근 지역
- 2010. 8. 3 : 위례신도시 내 향군회관 건립 부지 관련 국방부 문서 회신. (회신 내용은 아래 참조)

위례신도시 내 향군회관 건립 부지 요청 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기본 협약서 수정 체결(2010.7.23) 내용 제7조 2항에 명시하였고,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협의 시 국방 업무시설 부지로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0. 12. 3 : 향군타운 마스터플랜 국·실장 의견 수렴(사무총장실)
- 부지 내 녹지 공간 확보

제2편 테마별 역사

- 컨벤션은 평일에는 회의실 사용 등으로 시설 활용성 제고
- 역사 자료 설치하는 공간 확보
- 강당은 1,000명 수용 가능토록 하되 대·중·소로 구분 설치
- ※ 연말 총회에 보고할 입체 영상
- 2010. 12. 23 : 향군타운 마스터플랜 회장 보고 시 지시사항
- 야외웨딩(50×60m), 숙박시설(21실) 설치
- 지하주차장에서 각 건물 진입이 가능토록 설계
- 회관타운 세부 도입 시설 목록 명시
- 건물은 남향으로 배치, 본관을 별관 위치로 이동
- 진입로 입구에 수위실 설치
-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보행로 개설
- 대회의실(1실), 중회의실(1~2실), 소회의실(3~4실) 설치
- 2010. 12. 23 : 향군회관 예정지 현장 방문(특전사 라이프아파트 지역) 현장 토의
- 참석자 : 회장단 6명
- 토의 결과 : 본관, 별관 쌍둥이로 나란히 동일 높이로 건립, 복지관은 본관 우측 방향, 웨딩홀은 임대지역에 배치
- 2011. 5. 4 : 향군 사업개발본부장/사업부장, 국방부 시설국장 방문 업무 협의
- 협의 사항 : 기부대 양여사업 추진 방안
- 제안 의견 : 위례신도시 내 국방 소요 시설(아파트, 학교)을 향군에서 건립하여 국방부로 기부하고, 향군회관 부지(1만 평)를 양여 받는 사업으로 추진
- ※ 시설국장 의견 : 재향군인회를 국방 군사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방 업무 시설 부지를 도시계획 용도 지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거나 제반 법적 방안을 담당 부서에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는 의지 표명.
- 2011. 11. 22 : 향군타운 부지 처리 방안 협의(국방부 국유재산과)
- ※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은 불가하므로 기타 방안 검토(기부채납사업, 유상 임대, 보훈처 관리 등)
- 2012. 10. 8 : 박세환 회장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
- 위례신도시 예정 지역인 특수전사령부 라이프아파트 부근에 지정된 향군타운 건립지를 국방부에서 재향군인회로의 부지 전환을 위해 국방부와 향군이 수의계약, 기부대양여사업, 지명경쟁입찰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 2012. 10. 19 : 기부채납사업 관련 국방부 국유재산과 방문 업무 협의
- 협의자 : 송파이전사업단장, 국유재산과장, 기부채납 주무관
- 인사복지실 예비역 정책발전TF장과 차후 사업 추진 협의

- 2012. 10. 29 : 국방부 송파이전사업단 방문 업무 협의
- 참석자 : 시설국 송파이전사업단장, 총괄장교, 인사복지실 예비역정책발전TF장, 재향군인회 사업담당부장
- 국방부 복안 :
재향군인회 부지 매입 시 수의계약 불가로 보장 불투명, 국방부에서 향군회관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1안) 재향군인회가 시설 건립,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
(2안) 국방부에서 건립하여 재향군인회가 무상 사용
- 협의 결과 : 2안은 예산 확보 곤란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기부채납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2012. 11. 12 : 기부채납사업으로 협의
- 장소 : 국방부 장관실
- 국방부에서 재향군인회장과 국방부장관 대담을 통해 기부채납 사업으로 추진 협의
- 2012. 12. 18 : 국방부와 향군 협약서 체결(향군회장-국방부장관)
- 향군에서 국방업무시설부지에 예비역 관련 업무 시설을 건립하여 국방부로 기부
- ※ 주요 내용 : 국방부가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기부 받을 예정인 국방 업무시설 부지(약 1만 평)에 재향군인회가 예비역 관련 업무 시설을 건립하여 국방부로 기부하고, 관련법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

이상 제시한 바와 같이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은 향후 기부채납 사업의 타당성(건립 시설 형태 및 규모, 수익성) 검토를 전문 연구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수익성 보장 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과 사업 추진 관련 협의 중에 있으므로 2013년 현재 구체적인 사업 성과 및 평가는 내릴 수 없으며, 2014년에 최종 검토 결과물을 토대로 국방부와 협의할 예정.

11 호국용사묘지 조성

향군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 참전 및 국가유공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의 위훈 선양을 위해 호국용사묘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계기로 향군은 참전군인 지원정책 사업으로 1997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1차 경북 영천과 전북 임실에 호국용사묘지를 완료하였다.

최초 호국용사묘지는 향군이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향군에서 일부 자부담으로 조성하였으나, 2006년 1월 29일부로 국립 호국원으로 개칭, 국립묘지화하여 보존처 관리로 전환되었다.

가. 조성 현황

(1) 총괄

구 분	경북 영천	전북 임실	경기 이천	경남 산청
건립기간	97.4~01.4	98.8~02.4	02.1~08.4	04.1~현재
건립예산 (향군 자부담)	220억 원 (42억 원)	178억 원 (38억 원)	383억 원 (55억 원)	497억 원 (45.9억 원)
부지면적	115천 평	106천 평	92천 평	174천 평
기부/채납	2003.7	2003.7	2008.9.5	2015.6(예정)

※ 경북 영천과 전북 임실호국원은 향군 50년사 참조

(2) 이천호국원 조성

이천호국원은 이천의 명산 노성산(老星山) 기슭(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산26-1 일원) 289,200㎡(약 87,000평)에 2005. 7. 1~2007. 11. 30까지 총 사업비 383억 원(국고예산 328억 원과 재향군인회 예산 55억 원)을 투입하였다. 책임 감리는 대한콘설탄트와 새한건축사사무소가 맡았고, 시공은 원건설과 건화종합건설이 하였다.

이천호국원은 수도권(서울, 이천, 경기, 강원권) 대상자 20여 만 명의 유해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2002년에 정부에서 국고 보조를 받아 추진하였으며, 위치 선정을 위하여 수도권 일원을 8개월 동안 79개소 후보지를 답사한 후 현충사업추진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로 결정하였다.

이천호국원 조성은 2002년 8월 2일 부지 매입을 하면서 시작되어 2003년 4월에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호국원 유치를 반대하는 부지 인근 대죽 6개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지원금 15억 원)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이루어져, 2004년 5월에 이천시에 인·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후 2005년 1월에 허가 받았다.

2005년 10월 13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공사현장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정부 요인, 각 정당 대표, 각군 총장 및 원로 장성회원, 무공수훈자, 참전단체 대표, 향군 임직원, 지역주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용사묘

지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거행했다.



이천호국원의 주요 시설물은 야외봉안담, 현충관, 현충문, 현충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현충관은 안장과 관련된 주된 업무를 행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합동 안장식 행사', '합동 안장을 위한 임시 봉안', '영현 이관' 등의 작업을 한다.

현충관 2층에 있는 전시관(140평)에는 호국원을 참배하는 유가족 및 일반인, 학생들이 관람토록 함으로써 호국영령들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관 구성 주제는 6·25 전쟁, 베트남 전쟁 파병, 6·25 전쟁 후 발생한 주요한 비정규전 작전, PKO 파병 및 발전하는 선진 정예 국군 등을 영상시스템 3점, 일반패널, 와이드컬러, 광섬유패널 및 모형, 실물 다수를 전시하였다. 현충문은 현충탑의 출입문으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인 '다포식' 방식으로 꾸며져 있으며, 현충탑은 조국 수호를 위해 신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위로하는 탑으로, 민족과 후손이 두 손을 모아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종별 예산 집행

단위 : 억원

계	부지매입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일반관리	기준공식	주민보상금
383.33	54.04	275.31	11.43	9.79	16.61	1.15	15

연도별 예산 집행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383.33	17.42	43.55	24.11	46.91	133.17	118.17

공사 내역

현충관	관리실	휴게실/식당	봉안담	야외화장실	기 타
549평	259평	400평	1만6천 위	2동/48평	현충탑, 현충문, 전시실

이천호국원은 기존 운영 중인 국립호국원(영천, 임실)과 안장 대상은 같으나, 안장 방식은 다르다. 기존의 호국원은 봉안묘에 안장하거나 실내에 봉안담을 설치하여 안치하고, 이천호국원은 야외봉안담에 안치하도록 하였다

제2편 테마별 역사

2008년 4월 30일 이천호국원은 한승수 국무총리, 김양 보훈처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원로장성회원, 참전용사, 향군회원, 시·도회장, 지역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행사는 국민의례, 경과 보고, 박세직 회장 인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축사, 축하 연주, 한승수 총리 치사, 준공 테이프 절단 후 현충탑 순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국립 이천호국원은 그동안 상당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거주 유공자 및 유족에게 불편했던 거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현재 이천호국원은 봉안담 형태로 5만기를 조성하여 수도권 안장 대상자에 대한 호국성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산청호국원 조성

산청호국원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49-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부지 면적 17만 평에 2012년 3월 1일 착공하여 오는 2014년 10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책임 감리는 대한건설단트와 도화엔지니어링이 맡았고, 시공은 도원이엔씨가 시행 중이다. 위치 선정은 현충사업추진위원(11명)이 현지 답사(2004. 6. 3, 사천, 밀양 중간에 도로망 양호한 곳 위주로 추가 후보지 물색)와 경남도회 및 본회 실무자 후보지 물색 14개소(2004. 6. 21~24), 본회 실무자 후보지 3개 지역으로 압축(2004. 7. 6)하였고, 현충사업단장이 3개 지역을 답사하여 최종적으로 단성면 남사리로 결정하였다.

산청호국원은 남부권(경남, 울산, 부산) 안장 대상자가 약 8만 명이며, 2006년 2월 산청군 도시계획 입안서를 제안하였으나 권철현 군수가 지방선거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여, 현 군수(이재근)와 상의하여 2007년 2월 산청군 도시계획에 재입안하였다.

2007년 5월 공람 공고 시 주민 반대(집회 2회) 및 산지법 저촉으로 산지법을 개정(2008.7.23)하여 본격적으로 인·허가 관련 행정을 추진했다.



산청호국원은 최초 2006년 3월 14일에 군관리계획 결정 제안을 했으나, 2009년 7월 30일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민 반대의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에 향군에서는 곧바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이의 제기를 하여 산청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부결)에 대한 취소를 받아낸 후, 2011년 5월 6일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산청군고시 제2011-30호)

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조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곳으로서, 차후 호국원 조성에 참고로 해야 할 점이 많은 곳이다.

사업 내용

야외봉안시설	현충관	관리실	휴게실/식당	기타
5만 기 (초기 1만)	1동(575평)	1동(306평)	1동(372평)	현충탑 / 현충문, 화장실(3), 조경

소요 예산(국고)

단위 : 억원

계	부지 매입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봉안담	현충탑	기/준 공식	용역/ 기타
497	32.94	17.17	356.67	16.04	48	14	1	11.18

예산 확보 및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기투자 (04~12)	투자		
			계	2013	2014
국고	497	131.3	365.7	124	241.7

2012년 3월 21일 산청호국원 공사 착공 기념 안전기원제를 경남 산청군 남사리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세환 회장과 부산지방보훈청장, 영관장교연합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등 참전·보훈단체 산청지역 지부장 공사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재향군인회가 오랫동안 공들여 왔던 산청호국원 건설 착공을 함께 축하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기원하였다.

박세환 회장은 기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순직하신 참전용사들이 예우 받으며 명멸할 수 있는 호국 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산청호국원은 2011년 5월 6일 산청군으로부터 도시계획 인허가를 획득하여 총 사업비 520억 원(국고 497억 원, 향군 차부담 23억 원)으로 하여 2012년 3월 착공하여 2013년 11월 현재 약 50% 진척하여, 2014년 10월 31일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준공년도 예산 일부가 미반영되어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즉, 2014년 예산 241.7억 원이 배정되어야 하나, 124억 원만 배정되고 117.7억 원은 2015년도로 이월되어 계획된 일정에 준공이 어렵게 되었다.

현충선양사업단은 준공년도 예산 전액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활동하였다.

- 기획재정부 및 국회(정부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방문 설명
-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조정분과위원회 방문 설명
-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공문 발송
- 박세환 회장 문화일보 기고
- 부산 및 경남 보훈단체장 산청호국원 사업설명회
- 광고 및 홍보(한국일보, 국방일보, 향군보, 서경방송 등)
- 경남지역 참전·보훈단체 대표단 국회 방문 등

활동 결과 국회 정무위 이재경 의원과 예결위원장 이군현 의원 등 다수 의원의 배려로 전액이 국회 통과되었다.

(4) 국립호국원 조성 사업 관리 전환 및 사업 방식 변경

2000년 10월에 영천 향군묘지 공사 준공 후, 2001년 1월 개원과 동시에 호국용사묘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3년 9월 5일에 국가보훈처에 기부채납을 하였다.

이후 2006년 12월 31일까지 국고 보조를 받아 향군에서 관리 운영하였으나, 2006년 1월 29일에 국립호국원(국립묘지)으로 격상되면서, 2007년 1월 1일부로 국가보훈처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었다.

그동안 재향군인회에서는 참전·보훈단체를 위해서 자부담(20%)과 국고 지원(80%)로 국립호국원을 조성해 왔다.

지금까지 4개 호국원을 조성하면서 약 180.9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국립묘지법 개정에 따라서 응답 환수되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 최초 사업 방식인 민간 경상 보조 사업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국가보훈처에 건의하여, 피산 호국원과 제주 국립묘지 조성 사업부터는 보훈처와 2013년도 12월 6일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체결 주요 내용은 사업 토지 등의 매입 및 보상 업무, 조성 사업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한정하였고, 설계와 인허가 업무는 조달청에서 수행하기로 하여 향군 현충선양사업 역사상 최초 목적형 수익사업화로 구조 전환되어 향군 재정 자립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각 호국원 조성 시 평균 40억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피산 및 제주 국립묘지 조성 사업부터는 반대로 용역비를 받고 조성하게 되어 향군이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는 역대 회장들이 이루어내지 못한 업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수탁비 산정 결과

구분	수수료(백만원)	위탁 기간
공사계약 미포함 시 (토지보상업무 포함)	3,159	35개월
공사계약 포함 시 (토지보상업무 포함)	3,488	39개월

※ 산청호국원 주민지원금 해소 비용 포함

※ 위 내용은 국가보훈처와 조달청이 업무 범위를 조정 후 재향군인회와 보훈처와 협의 예정

(5) 현충사업단 명칭 및 편제 변경

□ 시행 일자 : 2013년 11월 1일

□ 명칭 : 현충선양사업단(현충 : 기리고, 선양 : 널리 퍼뜨리다)

구 명칭	신 명칭
현충사업단	현충선양사업단

- 인원 : 4명 → 8명(직원: 6급경리행정과장 1명, 촉탁직: 호국원관리소장 4급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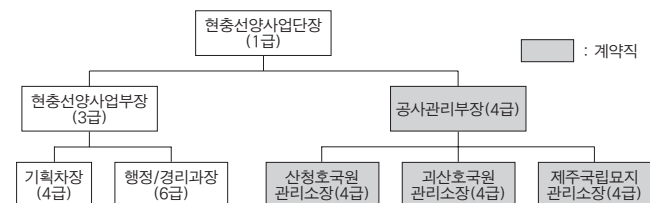
구분	인원	1급	3급		4급		6급	비고
			정직원	계약직	정직원	계약직		
현재	4	1	1	1	1	0	0	필요 시 관리소장 선임자가 관리부장 겸무
변경	8	1	1	-	1	4	1	

※ 2013년 9월 24일 이사회 통과

위·수탁비로 현충선양사업단 운영 : 2014. 1. 1부

□ 직무 조정 :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묘지사업 참여 - 용역
시행 및 공사 제반 업무 추가

□ 기구도



향군은 피산호국원과 제주 국립묘지를 다음과 같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과산호국원 및 제주 국립묘지 조성 계획

구 분	과산 국립호국원	제주 국립묘지
조성위치	충북 과산 문광면 광덕리 산38-1	제주시 노형동 산19-2외 1필지
부지면적	923,541㎡	440,792㎡
주요시설	봉안시설(10만 기), 관리동 등	봉안시설(1만여 기), 현충관 등
사업기간	2012년~2017년(6년)	2012년~2017년(6년)
총사업비	802억 원	363억 원
추진경과	• 조성사업 협약 : 2012.9.7(충청북도지사, 과산군수) • 협약서 체결 : 2012.9.20(제주도) • 위·수탁 협약서 체결 : 2012.12.6 • 토지보상 위·수탁 수수료 계약 : 2013.8.13 • 대표자 및 실무협의회 구성 : 2013.8.22 • 토지보상 업무 착수 : 2013.11.1	

□ 사업 추진 범위

- 보훈처 : 업무 총괄, 조달청 : 설계~인·허가 업무
- 재향군인회 : 토지 보상 업무, 공사 및 개원에 필요한 부대 업무

12 해외지회 창설 및 주요 활동

향군의 해외지회는 6·25 참전국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친목활동을 통한 교민들의 결속과 함께 해당국 참전용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위기 발생 시,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보하고, 안보 상황에 대한 교민들의 올바른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창설되었다.

가. 해외지회 주요 활동

2010년 초까지 향군의 해외지회는 총11개로서 각각 현지에서 안보활동과 유대강화 활동에 진력해 왔다.

2010년 초를 기준으로 향군의 해외지회는 1962년 창설된 일본지회에서 2005년 창설된 미 북동부지회에 이르기까지 총 6개국 11개 지회이고, 이들 지회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민 단합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양국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교량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치·경제 안정을 위해 해외 각지에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향군장학금 '만원 모으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전체 장학금의 16%를 모금하는 등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

(1) 일본지회(동경)

향군의 해외지회 중 제일 먼저 창설된 조직이다. 1952년 9월 재일동포를 중심으로 한국재향군인회를 창설(초대회장 정동화)하였으며, 조총련과의 투쟁, 동경대행사(大行寺)에 6·25 참전전몰자 납골당 및 충혼탑 건립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1962년 8월 7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일본지회로 명칭을 개칭했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일학도의용군 국가유공자 지정, 국립묘지 제11번 묘역 위령비 건립, 인천 수봉산공원 학도의용군 참전비 건립, 천안 망향의 동산 재일학도의용군 전용 묘역 조성 등을 비롯하여 한국해군순항훈련부대 환영행사, 불우회원 위문, 안보행사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2) 미 동부지회(워싱턴 D.C)

1969년 6월 29일 재향군인회 결성대회를 개최(초대회장 김판기)하여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그해 11월 18일 본회 제47차 이사회에서 미 동부지역회 설치를 결의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미 동부지회는 한인회와 공동 주최로 3·1절과 8·15 광복절 기념식 개최, 한국 참전용사 기념행사 및 미 향군병원 위문,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을 위한 음악회, 미 재향군인회 걸프전 지지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1997년 3월 내부 사정으로 회무를 정지했다.

그 후 2001년 3월 24일 미 동부지역 향군회원들의 요청과 워싱

던 향군의 이익 증진을 위해 재출범했고, 한국전 기념물 헌화식, 국제학술회의, 회상의 벽 건립 운동 추진, 재향군인의 날(베테란스 데이)을 기념하는 버지니아 매나세스 퍼레이드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3) 미 서부지회(로스앤젤레스)

1978년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했다(초대회장 이석봉). 미 서부지회는 6·25 전쟁 기념 각계 인사 초청 간담회,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 향군의 날 기념행사,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 9·28 서울 수복 및 맥아더 장군 추모 기념식과 미 한국전 참전용사 부상자 위문, LA 소재 미40사단 한국전 참전 추모비 제막, 일본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 제2차 연평해전 북한 무력도발 규탄대회,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시 우정의 종 타종식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4) 미 중서부지회(시카고)

1984년 8월 25일 창립총회를 개최(초대회장 김정채)하여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미 중서부지회는 북한 금강산댐 구축 반대 성명 발표, 6·25 참전 상이용사 병원 위문, 일리노이 한국전 참전기념비 제막식 및 무궁화 300주 식수, 투스콜라 시(市) 국립 한국전 참전 기념 박물관 및 도서관 건립 기공식, 일본 역사 바로잡기 운동, 한국전 참전 박물관 전시용 해병대 1사단기 전달, 한국전 참전 기념 박물관 건립기금 모금활동, 독립전쟁을 비롯해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 120만 명을 추모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퍼레이드 행사를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여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5) 미 남부지회(애틀랜타)

1996년 3월 31일 창립총회를 개최(초대회장 김광현)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미 남부지회는 창설 이후 추계한미 합동 야유회, 안보강연 및 조지아 어거스타 연합 분회 창설, 6·25 참전 한미 연합의 밤 개최 및 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와 미 재향군인의 날 기념 퍼레이드 참가, 포트베닝보병학교 방문, 한국전전시관 건립 지원 성금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 미 참전용사 초청 기자회견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6) 미 북동부지회(뉴욕)

1969년 6월 29일 출범한 미국 동부지역회(미 구(舊)동부지회)가 전신이다. 미 구(舊)동부지회는 회무 실적이 부진하고 내부 문제가 악화되어 1997년 해산되었다.

그 후 뉴욕지역 한국전 참전전우회를 비롯한 각급 단체에서 이 지역에 약 40만 명의 교포가 거주하고 있고, 향군의 안보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지회 설립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 2005년 5월 12일 미 북동부지회를

창설(초대회장 박종각)했다. 미 북동부지회는 새로이 창설된 이후 심기일전하여 미 보훈의 집 참전용사 위문, 미 향군의 날 기념 뉴욕 퍼레이드 참가, 천안함·연평도 포격 규탄대회, 키세나 공원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안보포럼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7) 캐나다 동부지회(토론토)

1987년 1월 24일 창립총회를 개최(초대회장 고종열)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캐나다 동부지회는 한국전 참전기념비 제막, 런던 파크우드원호병원 한국전 참전용사 위문, 6·25 참전전우회 결성 및 전우의 밤 행사 개최, 해밀턴 지역 참전용사 평화의 사도 기장 수여, 몬트리올 분회 창립 및 한인회관 건립 기금 전달, 한국전 참전 전몰용사 추모 위령의 벽 준공, 써니부룩종합병원 한국전 참전용사 위문, 한국전 캐나다군 전사자 추모식, 한반도 평화 마라톤대회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8) 캐나다 서부지회(밴쿠버)

1997년 10월 21일 밴쿠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초대회장, 이유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캐나다 서부지회는 IMF 당시 나라경제살리기운동 전개 및 5만 불 송금, 한국전 참전용사 한국 방문 지원, 향군뉴스 발간 및 안보강연회, 캐나다 현충일 전몰용사 추모 위한 POPPY(양귀비꽃) 캠페인, 캐나다 한국전 참전 입원 환자 포상, 6·25기념 안보강좌 및 참전용사 위문, 버나비 시(市)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6·25 전쟁의 진실을 바로 알리기 운동으로 6·25 참전용사들의 수기를 모아 『조국을 위해 이렇게 싸웠다』라는 책을 내어 교민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9) 호주지회(시드니)

1983년 5월 27일 창설(초대회장 이종운)되었다. 호주지회는 교민 2세를 위한 조국 알리기 홍보책자 '남십자성' 발간, 퀸즈랜드분회 창설, 한국전 참전협회 발족, 조국 경제 돕기 운동 전개 및 보훈병원 위문, IMF 당시 외화 보내기 및 금가락지 모으기, 한국 물건 구입하기 등 조국 경제 구하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시드니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일본 전쟁범죄 규탄 및 신군국주의 부활 반대 총궐기대회,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는 데 앞장서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10) 아르헨티나지회(부에노스아이레스)

1989년 7월 29일 창설(초대회장 김인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아르헨티나지회는 교민 사회의 선도적 단체로서, 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운동과 향군 단합 씨름대회, 아르헨티나지회참모대학 장학금 전달, 광복절 기념 교민 사생대회, 6·25 기념 안보강연회,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태권도선수단 후원회 조직, 수재민 돕기 범교민운동본부 조직, 재향군인회 체육대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11) 대만지회(타이베이)

1982년 10월 9일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초대회장, 손복규)했다. 대만지회는 대한항공 여객기 피격사 추도회 및 소련 만행 규탄대회, 반공연맹 사무총장 우재승 박사 초청 시국강연회 및 한국어 웅변대회, 한국인의 밤 행사 및 평화의 댐 건설 성금 모금, 88서울올림픽 적극 지원, 경로잔치 및 LA폭동 피해자 위로성금 모금, 단교 후 교민 실정 대통령 보고, 모국 경제위기 지원 토론회, 교민 사기 증진을 위한 교민 야유회 개최, 단교 후 중단된 한국어 웅변대회 재개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나. 2010년 이후 해외지회 창설과 주요 활동

박세환 회장은 2009년 9월, 제33대 향군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향군의 해외 역량을 강화한다는 큰 목표를 세우고 해외지회 확대를 적극 추진해 왔다.

1년 여에 걸친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 2010년 10월, 유럽과 남미, 북미지역 등 3개 지역에 새로이 해외지회를 창설하였다.

이후 2011년에는 뉴질랜드지회가 4월 28일, 영국지회가 5월 2일 프랑스지회가 5월 6일, 필리핀지회가 12월 1일, 태국지회가 12월 3일, 미국 중남부지회는 2013년 5월 23일 각각 창설되었다.

(1) 독일지회(뒤셀도르프)

유럽지역에 창설된 최초의 지회인 독일지회는 유럽지역의 향군조직 확대를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수행하며, 창설 직후부터 3개 분회를 조직, 설치하고 독일 내 중북 좌파세력과의 싸움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며, 2010년 초부터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하여 김정일 규탄대회, 재독 문화회관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북한 인권 사진 영상전’을 개최하였다.

(2) 브라질지회(상파울로)

아르헨티나에 이어 제2의 남미 굴지의 향군지회로 창설된 브라질지회(상파울로)는 앞으로 남미지역 향군 조직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며, 창설을 전후하여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복구 작업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 6·25 참전용사 위로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등 교민사회의 유대 강화와 안보의식 확산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3) 미 북서부지회(샌프란시스코)

미국 북서부지역의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에 창설된 미 북서부지회(샌프란시스코)는 인근 시애틀과 오레곤주 등을 망라하여 향군회원들을 결속하는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 북서부지회는 창설 직후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리곤밸리, 새크라멘토, 이스트베이 등지에 분회를 설치하고, 보수우익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4) 뉴질랜드지회(오클랜드)

2011년 4월 28일 창설 이래 안보활동으로 천안함 피격 1주기, 2주기 추모행사와 더불어 북한 규탄대회를 실시하였고, 오클랜드 거주 향군회원 및 동포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10월 1일 안보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2012년 11월 23일에는 해군 순항함대 요원이 동참한 가운데 400여 명이 참석하여 연평도 포격 1주년 추모행사를 실시하였다. 매년 4월 25일에 실시하는 안작(ANZAC)데이 퍼레이드 행사에 회원 및 교민 400여 명이 참석하여 행진을 실시하였다.



(5) 영국지회(런던)

2013년 3월 11일 재향군인회 김정록 지회장 외 영국지회 7명,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19명,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 및 재영조선

인협회 5명 총 31명이 참가하여 주영 북한 대사관 앞에서 3차 북한 핵실험 규탄, 정전협정 파기 및 판문점 철수에 대한 규탄 대회를 하였다. 2013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영국 국민 방문 시 한국전 참전기념비 기공식이 거행될 수 있었던 것도 영국지회와 영국참전협회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었다.



(6) 프랑스지회(파리)

2011년 6월 24일 프랑스 한국전 참전 61주년 기념행사 및 프랑스 참전용사 초청행사가 파리 소재 한국전 참전기념비(파리 4구역 시청앞) 앞에서 있었다. 이어서 파리 소재 셀레스탕 군 병영 내 식당에서 프랑스 측 보두앵 국회의원, 프랑스 한국전 참전협회 회장 및 한국전 프랑스 참전용사 부부 50여 명 및 프랑스 군 관계자와 한국 측, 주불 프랑스대사관 및 허강일 공사, 무관부 최석영 대령 및 유학장교단, 재향군인회 프랑스지회 나상원 회장 외 10여 명 회원이 참가하여, 6·25 참전기념비 헌화 및 참전 의미를 기리는 연설과 2부에서는 참전용사 무용담 강연, 향군의 파리지회 설립 보고 안내 및 호국행사 소개, 나상원 프랑스 지회장에 대한 프랑스 참전협회 공로 메달 수여식이 있었다.



(7) 필리핀지회(마닐라)

2011년 9월 7일은 필리핀 한국전 참전 기념일로 매년 국립묘지

에서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회 주최로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2013년에는 국립묘지(Bonifacio, Taguig city) 안에 한국전 기념탑에서 라모스 전 대통령, 바티스타 육군참모총장, 이혁 필리핀 대사, 엄익호 재향군인회 필리핀지회장, 한인총 연합회장, 필리핀 재향군인회 사무총장, PEFTOK 명예회원, 재향군인회 필리핀 지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3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12년에 한국전 기념관을 준공하여, PEFTOK에 기증하여, 현재 PEFTOK 사무실과 총회를 한국전 기념관에서 열고 있다. 필리핀지회는 PEFTOK 한국전 참전용사회 총회 시 5만 페소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혈맹의 우의를 더욱 강화하는 데 지회가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8) 태국지회(방콕)

안보 및 향군 위상 제고를 위해 2012년 2월 18일 한국, 미국, 태국 해병대 합동훈련 장병 위로 및 환송식에 이종혁 지회장 외 회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6월 12일에는 6·25 참전용사 후손 돕기 장학금 모금 골프대회를 지원하고, 8월 22일에는 6·25 참전용사마을을 방문하여 선물 전달 및 참전용사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가졌다. 특히 한국전 참전기념비가 있는 촌부리 21연대를 방문 헌화식 및 선물을 전달하고 박물관을 둘러보았다.

2013년 8월 8일 방콕 한국전 참전마을에서 참전마을 복지관 기공식 및 놀이터 준공식에 태국지회장인 이종혁 지회장이 참석하였다. 2013년 11월 15일 박세환 회장의 대양주 초도순시 및 아주지역 지회장회의 참석차 방콕 방문 당시 태국 한국전참전용사회에 들러 차행 (예)육군대장 회장을 예방하고 참전용사회 임원들에게 기념품과 선물을 전달하였다.

(9) 미국 중남부지회 창설(휴스턴)



텍사스주 휴스턴은 인구 250만 명의 미 중남부지역 중심 도시로서, 우리나라 총영사관을 비롯하여 전 세계 88개국의 외국공관이 주재하고 있다. 텍사스주를 비롯한 주변에 16만 명의 동포들이

거주하면서 14개의 한인단체와 민간 안보 관련 단체로 6·25 참전유공자회,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민주평통 등 많은 단체가 현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규환 지회발족 준비위원장, 문수원 6·25 유공자회장, 신현홍 해병대 전우회장, 민학기 미 중남부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회장을 비롯한 6·25 참전유공자들이 향군지회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0년 6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 중남부지회 발족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231명의 회원이 지회 창설을 위한 서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3년 5월 23일 휴스턴에서 미 중남부지회 창설식을 갖고, 김진석 씨를 만장일치로 초대 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2014년에는 해외지회의 분회로 활동하면서 회원 확보·단합과 안보역량 강화 및 회무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모범 분회를 선정하여 지회로 승격·창설하였는 바, 2014년 5월 15일 미국 필라델피아에 미 북중부지회를 창설하고 초대 지회장으로 이오영 씨를 선출하였으며, 2014년 5월 19일에는 미국 오렌지카운티에 미 남서부지회를 창설하고 이승해 씨를 만장일치로 초대 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향군해외지회는 2010년 10월부터 독일지회 설립을 필두로 2010년 3개 지회(독일, 브라질, 샌프란시스코), 2011년 5개 지회(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필리핀, 태국)를 설립하고, 2013년 5월 미 휴스턴에 2014년 5월 미국 필라델피아 및 오렌지카운티에 각각 해외지회를 설립하여, 현재 13개국 22개 해외지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창설된 향군의 해외지회는 그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특히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 및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 천안함 폭침 규탄대회, 연평도 포격 도발 규탄대회 시 각국 향군지회도 적극 동참하여 성명서 채택, 신문광고 게재, 북한 대사관 앞 일인시위 등을 전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향군은 미국 시애틀, 오렌지카운티, 필라델피아, 보스턴, 괌, 캐나다 몬트리올, 콜롬비아 보고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스위스, 캄보디아 등에 2014년부터 점차적으로 향군 해외지회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

향군해외지회는 앞으로도 교민 간의 단합과 해당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친한 정서를 확산시키고,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위로와 감사의 표시 등 보은정신 실천을 통한 활발한 민간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욱 높일 것이며, 늘어나는 해외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건전한 국가관 및 안보관 정립을 계도하는 등의 다양한 안보 활동을 통해, 교민사회에 안보 구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13 회장 선거제도 개선

향군은 52년도 창설 이래 42년 만인 1994년 4월 15일 전국총회에서 최초로 본회 회장 자유경선제를 실시하여 제27대 장태완 회장을 선출하였다.

본회 회장의 자유경선제는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당시 소준열 회장의 의지로 시행되었다.

이후 제28대부터 제34대에 이르기까지 이상훈 회장, 박세직 회장, 박세환 회장이 자유경선에 의해서 선출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시·도회장, 시·군·구회장까지 경선에 의해 선출함으로써 민주화된 사회단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속적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경주해 왔다.

가. 선거제도 개선 연구(2003~2009년)

구 분	개선 연구 · 검토 내용	결 과
2003.5~2003.9 (이상훈 회장) 향군 개혁발전위원회	- 입후보자 난립 방지책으로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 본회장 등 각급회장 임기 - 본회장 : 5년 또는 4년 단임 - 시·도 및 시·군·구회장 : 4년 중임	
2005.8~2006.3 (이상훈 회장) 향군혁신위원회	-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 본회장은 5년 또는 4년 단임제 - 총회 대의원 포함 선거인단 1,000명 이상 확대 ∴ 회법개정안 의원 입법 추진	
2009.10~2009.12 (박세환 회장) 향군 개혁발전위원회	1안: 회장 후보 추대위원회 설치 운영 2안: 선거인단 구성수를 확대 3안: 현 제도 보완 개선 ∴ 결론 : 현 제도 보완 개선 -권역별 합동연설회 개최 -입후보자 등록 강화(후보 추천 신설) -후보자 선거 홍보물 게재 확대 - 임기 : 본회 3년 중임(현행), 각 급회 3년 중임(연임 규정 삭제)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부분 변경

나. 향군 개혁60위원회 연구 · 검토(2012.5.1~12.31)

향군 선거제도 개선은 개혁위원회 운영 시마다 매년 제안된 사항으로, 2012년 4월 제34대 회장에 재선된 박세환 회장은 '향군개혁 60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재임 시 필히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선거제도 개선을 꼽았다.

이에 2012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편성·운영된 개혁60위원회(위원장, 해군부회장)는 개혁 분야 중 하나인 선거제도 개선을 위하여 각급회장의 임기 및 선출 방법의 검토, 각급회 의견 수렴, 법적 검토, 이에 따른 회법 및 정관 변경 추진을 세부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안을 작성하였다.

(1) 본회 선거제도 전반

□ 현행 향군회장 선거제도

- 각급회장 및 임원 임기
 - 본회 회장, 부회장, 이사, 대의원 : 3년 1차 중임, 감사 : 2년 1차 중임
 - 시·도 및 시·군·구회장, 부회장, 이사, 대의원 : 3년 1차 중임(+1차 연임 가능), 감사 : 2년 1차 중임(+1차 연임 가능)
- 선거인단(대의원) 구성
 - 본회 : 386명(본부임원, 시·도회장, 지회장, 시·군·구회장, 직장 연합분회장, 시도회 부회장, 직능대표)
 - 시·도회 :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이사, 시·군·구회장 및 부회장, 지역대표 및 직능대표(선출)
 - 시·군·구회 :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읍·면·동회장 및 부회장, 지역대표(선출)

□ 문제점 분석

- 차기 선거를 의식하여 소신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곤란
- 각급회장의 장기 연임 시 조직의 침체 현상과 독선적인 회 운영 우려 및 다수 회원의 참여 기회 제한
- 선거인단 구성 자체가 현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 인식
- 현 회장 출마 시 업무 수행과 선거운동의 경계점 모호
- 미리 결정된 소수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비리 원인 제공

□ 보훈처 지침(2012.4.17)

- 회장 임기의 적합한 방안 도출 : 단임제(5년, 4년, 3년 등), 중임제
-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인단 재구성(확대 또는 별도 선거인단 구성)

※ 2015년 선출자부터 적용

(2) 각급회 회장 선출 방법 검토

□ 검토 안

- 1안 : 회장 후보 추대위원회 설치 운영
- 2안 : 선거인단 구성원 수 확대(참전·친목단체, 시·도회 이사, 읍·면·동회장 포함)
- 3안 : 현 제도 보완 개선(권역별 합동 연설회, 입후보 자격 강화, 홍보물 게재 확대 등)

(3) 각급회 회장 임기제도 검토

□ 검토 안

- 1안 : 현행 제도 유지(본회 : 3년 중임, 각급회 : 3년 1차 중임, 특별한 경우 1차 연임)
- 2안 : 현행 제도 개선(본회 : 3년 중임, 각급회 : 3년 1차 중임, 연임규정 삭제)
- 3안 : 본회 4년 단임, 각급회 4년 1차 중임

(4) 각급회 설명회 및 의견 수렴

□ 기간 : 2012. 12. 7~16

□ 선거제도 관련 의견

- 회장 후보 추천서와 관련 특정 후보 제한 우려
- 상근직 직원(사무처장, 사무국장)의 선거권 제한 요망
- 각급회 회장 임기 : 4년 1차 중임으로 제한

다. 향군 개혁60위원회 연구안 후속 조치

향군 개혁60위원회의 연구안은 2013년 정기 전국총회(2013.4.18, 제61차)에 상정하여 본회 회장 임기는 4년 단임 및 중임 불가, 선거인수는 1,000명 이상으로 하고, 산하 각급 회장 임기는 4년 1차 중임하도록 의결함으로써 향군 선거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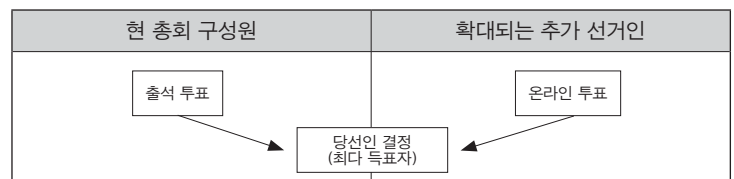
라. 향군 발전특별위원회(2013. 5. 2~2014.4.17) 발전안

이후 향군 내부에 설치·운영된 향군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개혁의안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 선거인수를 2,000명 이상으로 추진하는안을 결정하여 보훈처에 보고(2013.10.17)하였다.

이때 검토한 선거인 수는 다음과 같다.

본 회	시·도회 / 직장지회	시·군·구회 / 직장연합분회	읍·면·동회	기 타	계
100명	400명	896명	1,097명	100명	2,593명

그러나, 선거인수를 확대시 추가적인 검토과제가 많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확대되는 선거인을 총회구성원에 포함하여 특정 장소에서 출석투표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 이는 매년 정기총회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총회 성원 및 의결 등 절차상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확대되는 선거인은 총회 구성원에 포함하지 않고, 본부회장 선거에만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즉 본부회장 선거는 총회 구성원은 출석투표, 확대되는 추가선거인은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여 최다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때 실시하는 온라인 투표와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향군이 협의를 체결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위 개선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회법 제7조 및 제12조에 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총회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총회 구성원이 아닌 추가 선거인(온라인 투표)이 회장선출에 참여하고,

제2편 테마별 역사

과반수가 아닌 최다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은 회법에 위배됨을 확인하였다.

위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본부 회장 선거는 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선거인의 확대가 필요하며, 본부 회장 선거는 총회와 분리하여 회원으로 구성된 선거인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조치로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도움으로 2013년 12월 6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여 법안 심사 및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법령 공포하도록 추진 중이며, 2014년 4월 17일 정기 전국총회(제62차)에서 각급회 임원의 임기 및 본부 회장 선출 관련한 정관을 개정하여 보존처 승인 후 적용할 예정이다. 이때 본부회장 선출관련 정관은 법안이 통과해야 하는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의결을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회법과 정관의 개정 등 추진 결과에 맞추어 2014년 7월 이사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할 계획이다.

(1) 회법 개정 추진 내용

회장은 총회에서가 아닌, 회원으로 구성된 별도 선거인의 투표에 의해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개정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선거인 수와 구성,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

주요 개정 내용(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안
제12조(임원) ②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부회장이 아닌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12조(임원) ② 회장은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수와 구성,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이사·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회장,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부회장,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부회장,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2) 정관 변경 추진 내용

□ 정관 변경(1)

임원의 수 및 임기 관련 개정 사항

• 제17조(대의원 선출 등) : 대의원의 임기는 **4년, 1차 중임**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 제43조(임원의 종류 및 수) : 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2. 부회장 : **6인**

1, 3-5 현행과 같음

• 제46조 2(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각 4년, 감사는 3년으로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회장이 재선거 또는 궐위나 자격 상실로 인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 그 임기는 새로이 기산한다. 이 경우 차기 회장의 임기 기산 시점을 맞추기 위해 4년 경과 후의 임기를 1년 이내에 한해 연장하되, 연장되는 임기는 이 정관에 의해 처음 선출된 회장의 임기 기산 시점의 해당 월·일까지로 한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궐위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각 단체를 대표하여 이사로 선임된 자는 해당 단체의 대표직 종료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 제51조(임원의 임기)

①시·도회 및 지회의 회장 및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각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의 경우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시·도회 및 지회가 새로이 창설된 경우 당해 시·도회 및 지회의 초대임원(사무처장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년의 범위 안에서 회장이 따로 정한다.

③현행과 같음

• 제56조(임원의 임기)

①시·군·구회 및 연합분회의 회장 및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각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의 경우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 제61조(임원의 임기)

①읍·면·동회 및 분회의 회장 및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각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당해회의 총회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회장의 경우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 정관 변경(2)

본부 회장 선출 관련 개정 사항 <회법개정 정지조건부 개정안>

• 제19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본부 임원 중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1, 3-6 현행과 같음

• 제44조 (임원의 선임)

①회장은 회원으로 구성된 선거인에 의해 투표로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정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한 총회 구성원을 포함하고, 추가 선거인을 아래와 같은 기
준으로 구성하며, 추가 선거인 중 다수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
는 경우는 임의 추천 방식을 택한다.

- 본부 부서장
- 시·도회 이사 : 회별 재적 인원의 2/3
- 시·군·구회 부회장 : 시·도회별 재적 인원의 1/2
- 읍·면·동회장 : 시·도회별 재적 인원의 1/5
- 향군본부에 등록된 참전/친목단체 대표
- 향군본부 자문위원 : 전체 선거인의 1/50 이내

③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결선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며, 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 기간 중 중도 사퇴 등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
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④회장 선출에 관한 투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
로 정한다.

⑤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임하되,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출신 회원의 비율과 각 계층별, 향군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
여 선임한다.

⑥~⑧(현행 ②, ③, ④와 같음)

- 제45조(궐위 시 후임자 선출) ①~② (현행과 같음)

정관 변경과 함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변
경할 예정이다.

선거제도의 개선은 향군의 각급회 회원 상호 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주춧돌을 다시 놓는다는 정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박
세환 회장 취임 초기부터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여 2년여 동안
검토 끝에 결론을 내린 바, 이를 실행하기 위해 회법 개정과 정관
변경 등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회법 개정과 이에 따른 정관 변경, 선거 관리 규정 일부
변경을 마무리할 경우 2015년부터는 개선된 선거제도가 시행된다.



14 향군상조회 활성화

재향군인회는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공익단체로서 그동안 국립 묘지에 안장하지 못한 6·25 참전용사 등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의 영면을 위해 1997년부터 영천, 임실 등에 호국용사묘지 조성 사업에 힘써 왔으며,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하여 2005년 12월 1일 상조회를 설립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여타 일반 상조회사와는 달리, 수익 추구가 목적이 아닌 향군회원, 국가유공자를 포함하는 일반 국민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품격 있고 경제적인 장례행사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가. 향군상조회 연혁

- 2005. 12. 향군상조회, 향군가족 출범
- 2006. 2. 향군상조회, 향군가족 영업 개시
- 2007. 2. 신용협동조합 상조 업무 제휴 협약 체결
 - 20 업무 제휴 협약 체결
- 7.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상조 업무 제휴 협약 체결
- 2009. 3. 상조회원 10만 명 달성
 - 10. 현대아이파크몰(홈쇼핑) 상조 업무 제휴 협약 체결
- 2010. 4. '천안함 46용사' 추모 분향소 설치, 운구 리무진 지원
 - 5. 전국 의전 직영화 전면 시행
 - 7. 대한불교 조계종 상조 업무 제휴 협약 체결
 - 9. (주)재향군인회상조회 상호명 변경(舊 향군가족)
 - 9. 소비자 보호 선수금 예치 계약(농협중앙회)
- 2011. 3. 상조회원 20만 명 달성
 - 11.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상조 업무 제휴 협약 체결
- 2012. 4. 재단법인 흥익회 상조 업무 제휴 협약 체결
- 2013. 4.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여성회 상조업무 제휴 협약 체결
 - 5. 재향군인회 상조회 본사 확장 이전(서울 성동구 개포빌딩)
 - 6. 금융예수금(회원비) 1,000억 원 돌파
 - 8. 롯데닷컴 상조 업무 제휴 협약 체결
 - 10. 소비자보호 선수금 예치 계약(하나은행)
 - 금융예수금(회원비) 1,100억 원 돌파
- 2014. 1. 상조회원 25만 명 달성
 - 2. 금융예수금 1,200억 원 돌파
 - 4. (주)중앙고속관광 상조 여행 부문 업무 제휴 협약 체결

나. 전국 회원 관리 조직망

- 전국 시·도 재향군인회를 기준하여 전국 영업소 및 의전팀장 배치
- 전국 의전팀 직영화(2010.5)

전국 의전팀장 지역별 배치현황



다. 향군상조회 회원 서비스 방침

- 연중 무휴 24시간 장례서비스 제공(T.1688-1990, 1600-0440)
- 전문 장례지도사를 3일간 파견하여 장례 전 과정 진행
- 전문 도우미를 파견하여 조문객 접대 지원
- 각종 행정안내 서비스 완벽 지원
-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가입자가 언제나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전국 협력업체를 통한 각종 회원 특전 제공

라. 향군상조회 회원 가입 및 예수금 예치 현황

회원 가입 현황									단위 : 천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3
회원수	5	35	87	156	193	215	232	250	253

회원 예수금 예치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2
예수금	1	19	70	173	361	601	874	1,154	1,200

마. 사회 공헌 의전행사

재향군인회는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공익단체로서 이에 걸맞게 재향군인회상조회는 국가적 장례지 원에 앞장서 왔다.

- 천안함 46용사 합동 분향소 설치(서울역광장, 2010.4.26~29) 및 영결식 운구 리무진 지원(2함대사령부, 2010.4.29)
- 고 황장엽 북한 민주화위원장 통일사회장 지원(2010.10.10)
- 연평도 전투 전사자 합동 영결식 지원(2010.11.26)
- 장태완 장군(전 향군회장) 향군장(2010.7.29)
- 사할린 강제 동원 희생자 18명 유골 봉환(2014.8.28)

바. 수상 경력

- 2011. 8. 29 : 한국문화·관광브랜드서비스大賞 : 혁신상조브랜드부문대상((사)한국문화관광평가연구원)
- 2011. 8.31 : 고객행복경영大賞 : 전문서비스·상조부문대상(동아일보·서비스마케팅학회)
- 2011. 9. 8 : 소비자신뢰대표브랜드大賞 : 상조서비스부문대상((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
- 2012. 6. 14 : 한국소비자보호브랜드大賞 : 경영혁신상조부문대상(한국소비자경영평가원)
- 2012. 6. 28 : 대한민국혁신우수기업大賞 : 상조혁신우수기업부문대상(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 2012. 7. 3 : 고객감동 & POWER KOREA大賞 : 상조혁신기업부문대상(스포츠서울)
- 2012. 8. 8 : 고객감동경영&브랜드大賞 : 상조문화부문대상(스포츠동아)
- 2012. 10. 13 : 대한민국모범기업인大賞 : 윤리경영부문대상(한국언론사협회)
- 2013. 12. 9 : 대한민국소비자大賞 : 소비자브랜드부문대상(한국소비자협회)
- 2013. 12. 19 : 대한민국올해빛나이트상품大賞 : 올해빛나이트상품대상(디지털조선일보)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향군회원뿐 아니라 전 국민의 복지를 위한 상조업계의 모범업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현 박세환 회장 취임 후인 2010년부터는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상조회원 25만명(2014.1)과 금융예수금 1,200억 원(2014.2.28)을 돌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15 향군 창설 60주년 '국민안보공감 캠페인' 행사

향군은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17개의 주요 행사, 13개의 관련 행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연중 지속 행사로 구성된 '국민안보공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계기로 향군은 본부를 주축으로 13개 시·도회와 222개 시·군·구회 그리고 20개 해외지회 등이 주도하는 호국안보 활동, 문화행사, SNS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향군 관련단체 및 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보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시켰다. 또한 향군의 기존 관련 행사와 연계하여 범국민 참여 붐을 조성하는 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국가안보 제2보루의 새 향군 위상을 제고시킴은 물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안보공감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향군의 건재함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향후 60년을 기약하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2012년 10월 8일 거행된 창설 60주년 기념 주요 행사는 현충원 참배, 청와대 예방, 호국안보 퍼레이드, 안보공감 비전 선포식(기념식), 안보공감 콘서트 등이다. 이중 기념식과 호국안보 퍼레이드, 안보공감 비전 선포식, 안보공감 콘서트 행사는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12,000여 명의 향군회원, 참전친목단체, 사회단체,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장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비롯한 김관진 국방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백선엽 장군 등 군 원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 왔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12월 12일 향군 재건 총회에 국가 최고회의 의장으로, 1968년 2월 28일에는 대통령으로 재향군인회 제9차 정기 전국총회에 참석한 데 이어 1968년 4월 1일 재향군인회를 모태로 한 250만 명 향토예비군 창설식에 참석한 바 있다.

금번 향군 창설 60주년 기념식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참석하여 부녀 대통령의 향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창설 축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가. 안보공감 비전 선포식

향군은 「60년 향군의 힘! 더 큰 대한민국」 주제 아래 안보공감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박세환 회장은 기념사에서 “전쟁에서의 희생과 휴전 이후 향토 예비군 창설의 산파, 또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전통을 이어온 향군의 역사에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60년을 위한 튼튼한 토대 마련을 위해 향군회원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설 것”을 당부하였으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도 축사를 통해 향군 창설 60주년을 축하하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

제2편 테마별 역사

조했다

이날 박근혜 대선후보는 “항군은 안보 위기마다 안보역량을 결집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고 축하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비롯해 어떤 외부의 위협에도 대처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고,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5년에도 전력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한미동맹을 굳건히 정립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수속 대선후보, 김관진 국방부장관, 백선엽 장군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창설 60주년을 축하하고 조국 근대화와 국가안보에 기여해 온 항군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박세환 회장



▶ 박세환 회장 기념사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축하



▶ 비전 선포식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축사

나. 현충원 참배 및 청와대 예방

박세환 회장을 비롯한 향군 임직원 및 친목단체 임원 등 200여명은 현충원 참배 후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재향군인회 창설 60주년을 축하하며 “정치에는 임기가 있지만 안보와 민생에는 임기가 없다.”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재향군인회가 안보의 중심에서 있다.”고 “향군이 강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격려했다.

창설 60주년 행사는 850만 회원을 중심으로 안보보수단체를 결집시켜 북한의 도발 및 대남 적화전략 의지를 말살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거부하는 중북 세력을 척결해온 재향군인회 60년이 평가받고 군 통수권자로부터 축하와 신뢰를 받는 뜻깊은 자리였다.



▶ 현충원 참배



▶ 청와대 예방

다. 호국안보 퍼레이드

서울광장 기념식장에 향군회원 및 친목단체, 사회단체, 시민 1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호국안보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을지로 입구, 남대문시장(숭례문)을 거쳐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2km구간에서 진행된 퍼레이드는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향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향군의 건재함을 국민에게 과시했다. 또한 향군회원, 참전·친목단체, 사회단체의 단합과 결속, 자부심과 긍지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날 퍼레이드에는 향군 창설 이래 최초로 20개 해외지회 회장이 전원 참석하여 창설 60주년 의미를 더했다.

국내 37개 언론 매체에서는 태극기를 흔들며 “향군은 하나다!”를 목청껏 소리치며 퍼레이드에 참여한 향군 회원들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주었다.



▶ 호국 퍼레이드

제2편 테마별 역사

라. 안보공감 콘서트

안보공감 콘서트는 국방홍보원 국군TV「위문열차」프로그램을 통해 젊게 변화하는 새 향군의 이미지에 맞춰 향군 회원들이 현역 장병 및 국민이 함께하는 ‘안보공감의 축제의 장’으로 진행되었으며, 연예 병사 가수 비를 비롯하여 KCM, 언터처블, 송대관, 적우, 걸그룹 달샤벳 등 다수의 인기 가수가 출연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 콘서트



▶ 장병들 관람

마. 기타 행사

‘희망’을 주제로 대한민국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대형 태극기에 새긴 ‘염원 태극기 만들기’와 통일과 안보에 관한 시민들의 메시지를 리본에 적어 안보의식을 고취한 ‘안보리본 만들기’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도 60주년의 의미를 배가시켰다.



▶ 염원 태극기 만들기



▶ 안보리본 만들기

16 성수회관 준공

향우실업(주)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옛 고지사업소 부지에 지상 13층 지하 5층, 연면적 6,318평(20,885.27㎡)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성수회관을 2011년 10월 1일 착공, 2013년 5월 5일 준공하여 2014년 7월 14일 총 137실 전체를 분양 및 소유권 이전을 100%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약 157억 원의 개발이익을 실현했다.

특히 국내 건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던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는 서울 구로, 성수동, 안양, 울산 등에서 분양이 어려웠으나 전국에서 최초로 분양 및 소유권 이전을 100% 완료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향우실업(주) 고지사업소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3월 9일 대통령 지시 제1호로 재향군인회를 정부기관 폐문서 수집 처리 전문 대행기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지시함에 따라 1976년 4월부터 폐문서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사업소로 운영 중이었다.

서울 도심의 성수동에 폐지 처리업소가 위치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폐지 처리업소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성수동에 위치한 고지사업소를 교외로 이전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우선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지사업소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매각 시보다 개발할 경우 순이익이 약 45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사업이 진행되었다.

향우실업(주)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1,500평 부지를 매입, 폐지 처리시설 587평을 신축하여 2011년 8월 1일 성수동 고지사업소를 이전하였다.

가. 경과

- 2010. 7. 26 : 수익 사업 심의 결과 지시(고지사업소 성수동→화성 이전)
- 2010. 9. 7 : 부지 매입(1,500평, 27.75억 원)
- 2010. 10. 22 : 설계, 감리 용역 계약(필립 건축사무소)
- 2010. 11. 5 : 공사도급 계약(중우건설)
- 2011. 8. 1 : 건축물 사용 승인(화성시→향우실업)

나. 지식산업센터 개발(신축, 분양)

- 2010. 7. 26 : 수익 사업 심의 결과 지시(성수회관 신축, 분양)
- 2010. 9. 14/2011. 5. 20 : 신축공사 설계, 감리 용역 계약(해안종합건축사무소)
- 2010. 10. 28 : 책임 분양대행 용역 계약(코리아리츠)
- 2011. 6. 27 : 신축공사 도급 계약(한라건설)
- 2013. 3. 28 : 건축물 사용 승인(성동구청 → 향우실업)
- 2013. 4. 30 : 취득세 납부, 보존 등기(성동구청, 등기소)
- 2013. 5. 27 :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 신고(성동구청)

- 2013. 7. 23 : 시스템에어컨 설치 납품 계약(에이스테크시스템)
- 2014. 7. 14 : 성수회관 총137실 중 137실 분양 및 소유권 이전 100% 완료
- 2014. 7. 29 : 성수회관 서울시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완료
- 2014. 8. 13 : 성수회관(지식산업센터) 사업 종결 보고(성수동 아파트형 공장)



▶ 향우실업(주) 고지사업소(화성)



▶ 상량식



▶ 조감도

17 회법정관 변경 및 조직 개편

가. 향군회법 개정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법은 1961년 5월 10일 법률 제617호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1963년 7월 19일 법률 제1367호에 의거 전면 개정된 이후 2001년 1월 8일 제6348호 공포까지 모두 10차례 걸쳐 개정(향군50년사 수록)되었다.

2003년 이후는 내용상의 큰 변경 없이 용어 및 문장의 정비로 1회 변경되었다.

- 제11차 개정(2008.12.31, 법률 제9326호)

(1) 개정 사유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

- ① “준사관(准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등 한자 병행 사용
- ② 제18조(시행령) 삭제
- ③ 제19조(과태료) ③~⑤항 삭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나. 향군정관 변경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관은 1962년 3월 1일 처음 제정되었으며, 1992년 12월 2일 회법 개정(법률 제4511호)에 의거 주무 부처가 국방부로부터 국가보훈처로 변경되기까지 17차례, 이후 2002년까지 13차례 변경하여 모두 30차례 변경되었다.

2003년 이후는 본부 이사 정원 조정, 종신회원 및 연 회원제에서 정회원제도로 변경되는 등 5회에 걸쳐 변경되었다.

- 제31차 변경(2005.7.6)

※ 50년사에 30차(2002.5.31)까지 수록하여 회차 연결

(1) 변경 사유 :

- ① 사업개발본부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종목을 추가
- ② 호국용사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됨에 따라 향군에서 관리·운영하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완
- ③ 본부이사의 정족수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조직 관리와 회 활성화를 도모

(2) 주요 내용 :

- ① 대전 코바클럽 사업장 개설과 관련 정관 제4조 ②항에 사업 종목 추가

체육시설 운영(골프장, 골프연습장, 간이골프장 등), 레저시설 운영(유원지, 위락시설 등), 콘도 및 펜션 운영

②국립호국원의 설치 신설

참전 및 제대군인의 안장, 안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향군 소속 하에 묘지를 관리·운영하는 사무소 설치

③본부이사 구성

이사 정족수 축소 및 전문화 이사회 구성

이사의 정예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 정족수를 축소 조정하고 전문성을 고려한 정책결정기구로 발전

이사 정족수 변경(정관 제43조 : 임원의 종류 및 수)

구 분	계	회장	부회장	이사
정 원	60인 이내	1인	10인 이내	49인
조 정	50인 이내	1인	5인	44인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안
제4조(사업) ①(생략) ②법 제4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생략) 2.부동산 임대업,.....취업 및 결혼상담 관련업, 3.~7.(생략) ③~④(생략) <신설>	제4조(사업) ①(현행과 같음) ②법 제4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현행과 같음) 2.부동산 임대업,.....취업 및 결혼상담 관련업, 체육시설운영(골프장, 골프연습장, 간이골프장 등), 레저시설 운영(유원지, 위락시설 등), 콘도 및 펜션 운영 사업 3.~7.(현행과 같음) ③~④(현행과 같음) 제13조의 3(호국원의 설치 등) ①참전 및 제대군인의 안장 및 안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회 소속 하에 묘지를 관리·운영하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③ <이후 삭제 2007.5.25>

현행	변경안
제43조(임원의 종류 및 수) 법 제12조 제1항 및 제 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 장 : 10인 이내 3. 사무총장 : 1인 4. 이사 : 60인 이내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5. 감사 : 2인	제43조(임원의 종류 및 수) 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 장 : 5인 3. 사무총장 : 1인 4. 이사 : 50인 이내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5. 감사 : 2인
제44조(임원의 선임) ①~②(생략) ③이사는 회장, 부회장 또는 감사가 아닌 회원 중에서 선임하되 각 시·도회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을 포함하고, 모든 계층 회원의 의견이 회 운영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선임한다. ④(생략)	제44조(임원의 선임) ①~②(현행과 같음) ③이사는 회장, 부회장 또는 감사가 아닌 회원 중에서 선임하되 각 시·도회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을 포함하며 모든 계층 회원의 의견이 회 운영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선임한다. 또한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여 안보 및 대외협력, 사업개발 및 예산분야 등 분야별 발전위원회를 편성 운영한다. ④(현행과 같음)

• 제32차 변경(2007.5.25)

(1) 변경 사유 :

- 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관으로 등록 요건을 구비
- ②향균회법(법률제6348호)과 정관 제4조에 의거 제대군인 사회적응 선도교육, 회원 복지증진 기여, 수익사업 구조 개선 등을 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교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③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여 온 국립 영천, 임실호국원 업무를 2007년 1월 1일부터 보훈처에서 직접 관리함에 있어 정관 일부 내용을 삭제

(2) 주요 내용 :

- ①정관 제4조 ②항 2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종목을 추가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정관 명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으로 산업자원부에 등록을 위한 요구 조건임.
- ②대학원대학교 설립과 관련, 제4조 ②항 6호에 사업 종목 추가 : 교육 관련 사업(대학원대학교 석박사학위과정, 학점은행제, 자격증 과정)
- ③제13조의 3(호국원의 설치 등)의 ②, ③항 삭제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안
제4조(사업) ①(생략) ②법 제4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생략) 2.부동산 임대업,콘도 및 펜션 운영 사업 3.~5.(생략) <신설> 6. 기타 수익사업 7.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③~④(생략)	제4조(사업) ①(현행과 같음) ②법 제4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현행과 같음) 2.부동산 임대업,콘도 및 펜션 운영 사업, 신·재생 에너지설비업 3.~5.(현행과 같음) 6. 교육관련사업(대학원대학교 석·박사 학위과정, 학점은행제, 자격증 과정) 7. 기타 수익사업 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③~④(현행과 같음)
제13조의 3(국립호국원의 설치 등) ①참전 및 제대군인의 안장 및 안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회 소속하에 묘지를 관리·운영하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국립호국원사무지 관리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영천호국원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2. 국립임실호국원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현리 ③국립호국원의 편성은 관리과, 전례과, 현충선양과를 두고 정원은 18명으로 구성하며, 업무관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의 3(호국원의 설치 등) ①참전 및 제대군인의 안장 및 안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본회 소속하에 묘지를 관리·운영하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삭제> ③<삭제>

• 제33차 변경(2009.5.7)

(1) 변경 사유 :

정관 제46조 2(임원의 임기)②항에 임기 만료로 인한 임원 선출 시 임기 만료 7일 이전에 후임 임원을 선출할 경우 3년 단위로 임원 선출(총회) 일자가 7일씩 앞당겨져야 하는 문제 발생

(2) 주요 내용 :

- ①‘임기 만료 7일 이전에’를 ‘임기 만료일 전 7일 이내에’로 수정
- ②‘임기 만료 전일까지’를 ‘임기 만료 일까지’로 수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안
제46조 2(임원의 임기) ①(생략) ②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개선은 임기만료 7일 이전에 후임임원을 선출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만료 전일까지 후임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임임원 선출 시까지 임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임기만료 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 2(임원의 임기) ①(현행과 같음) ②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개선은 임기 만료일 전 7일 이내에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만료 일까지 후임임원을

• 제34차 변경(2010.8.2)

(1) 변경 사유 :

- ① S&S사업본부의 용역사업 종목인 아파트 시설 관리 사업을 위한 ‘주택관리업’을 추가
- ②회원의 구분이 복잡하여 단순화 : 준회원, 종신회원, 연회원을 폐지하고 회원, 정회원으로 구분

(2) 변경 내용 :

- ①정관 제4조(사업)②항 2호에 사업 품목 추가 : 주택관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6821)
- ②정관 제6조(회원) ①항 수정 : 준회원, 정회원, 종신회원, 연회원을 회원, 정회원으로 변경
종신회비, 연회비를 회비로 단일화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안
제4조(사업) ①(생략) ②법 제4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임대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생략).....	제4조(사업) ①(현행과 같음) ②법 제4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부동산임대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주택관리업

제2편 테마별 역사

현행	변경안
제6조(회원) 회원은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은 연령에 관계 없이 회원이 되며, 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준회원으로 분류하며,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는 연회원으로 호칭하고, 연회원은 1년간 정회원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회원) 회원은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삭제)…… ……회원 중 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으로 분류한다.……(삭제)…… …… …… …… …… ②(현행과 같음)

- 제35차 변경(2011.6.8)
 - (1) 변경 사유 :
대전 국립현충원 의전 용역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사업 종목 추가
 - (2) 변경 내용 :
제4조(사업) 제②항 2호에 ‘전시 및 행사대행업’ 추가
표준 산업분류기호 : 75992(전시 및 행사대행업)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안
제4조(사업) ①(생략) ②법 제4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략) 2.부동산 임대업…………… ……………주택관리업,〈신설〉 3.~5.(생략)	제4조(사업) ①(현행과 같음) ②법 제4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행과 같음) 2.부동산 임대업 …………… ……………주택관리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3.~5.(현행과 같음)

- 제36차 변경(2012년 5월 4일)
 - (1)변경 사유
 - ① “금융 및 보험업”과 교육문화사업분부의 “교육관련사업” 삭제
 - ② 이사회 의결사항을 보완, 사업 심의시 전문경력자로 선임 기준 명문화
 - ③ 총장의 직무를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2인으로 구성
 - ④정관변경안은 총회 30일전까지 이사회 상정/의결토록 조정
 - ⑤정관변경안 제출은 재적이사 5분의1 (10명) 이상으로 발의
 - ⑥향군여성회 설립근거 변경: “보조조직” → “별도조직”
 - (2)변경 내용
 - ① 제4조(사업) ②항 사업종목 삭제: “금융 및 보험업”과 “교육 관련사업(대학원대학교 석·박사학위과정, 학점은행제, 자격증과정)”
 - ②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본회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추가,
제44조(임원의 선임) ③항에 수익사업의 심의시 전문경력자 재적이사 10분의1이상을 선임토록 기준 추가

- ③ 제43조(임원의 종류 및 수) 사무총장을 2인으로 하고 각각의 임무 명시
- ④ 제92조(정관변경안의 이사회 부의) 정관변경안의 총회부의 일정을 총회일 30일 전까지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하고,
- ⑤ 제91조(정관변경안의 발의) 재적이사 5분의1로 조정
- ⑥ 제13조의2(여성회의 설치) “보조조직 운영규정”에서 “향군 여성회 운영규정”근거 변경

(3)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안
제4조(사업) ① (생략) ②법 제4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6. 교육관련사업(대학원 대학교 석·박사학위 과정, 학점은행제, 자격증과정) 7.~8. (생략) ③~④ (생략)	제4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현행과 같음) 6. 〈삭제〉 7.~ 8.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여성회의 설치) ①본회의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회에 보조조직으로 여성회를 둘 수 있다. ②각급회의 여성회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보조조직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여성회의 설치) ①각급회의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각급회에 여성회를 둘 수 있다. ②각급회의 여성회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여성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2. (생략) 3. 본회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차입금과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기금의 운용 계획 4.~7. (생략)	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전문경력자로 선임된 이사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본회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차입, 보증, 기타 신용공여, 담보의 제공과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기금의 운용계획. 4.~7. (현행과 같음)
제43조(임원의 종류 및 수) 법 제12조 제1항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5인 3. 사무총장 : 1인 4. 이사 : 50인이내(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5. 감사 : 2인	제43조(임원의 종류 및 수) …………… ……………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3. 사무총장: 2인(1인은 경영총장으로 한다) 4. 이사: 50인이내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5. 감사: 2인
제44조(임원의 선임) ①~②(생략) ③ 이사는 회장, 부회장 또는 감사가 아닌 회원중에서 선임하되, 각 시·도 회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을 포함하고, 모든 계층 회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임한다. 또한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여 안보 및 대외협력, 사업개발 및 예산분야 등 분야별 발전위원회를 편성 운영한다. ④ (생략)	제44조(임원의 선임) ①~②(현행과 같음) ③ 이사는 …………… …………… 편성 운영하며, 특히 재적이사 10분의 1이상이 수익사업 전문경력자(변호사, 회계사, 전문경영인, 세무사 등)로 구성될 수 있도록 선임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임원의 직무) ①~② (생략)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46조(임원의 직무) ①~②(현행과 같음)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되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사무총장과 수익사업을 관장하는 경영총장으로 분담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각각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91조(정관변경안의발의) ① 정관의 변경안은 회장, 본부의 이사 5인이상 또는 본회의 총회구성원 5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 할 수 있다.	제91조(정관변경안의발의) ① 정관의 변경안은 회장, 본부의 이사 5분의1이상 또는 본회의 총회구성원 5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 할 수 있다.
제92조(정관변경안의 이사회 부의) 회장은 정관변경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 총회의 개최 20일전까지 본회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92조(정관변경안의 이사회 부의) 회장은 정관변경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 총회의 개최 30일전까지 본회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 기구 개편(본부 및 각급회)

본부 및 각급회의 기구 개편은 이사회에서 직제 규정 변경안에 대한 토의 및 의결로 이루어지며, 업무의 효율성에 기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왔다.

2011년도에는 경영총장제도를 두어 목적 사업은 사무총장이, 수익사업은 경영총장이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각급회 조직도에 여성회를 표기하여, 여성회원의 향균 소속감을 고취하였다.

• 제37차 기구 개편(2001.12.14)

※ 50년사에 36차(2001.7.11) 까지 수록하여 회차 연결

(1) 개편 사유 :

- 개발사업 본부(회원관리 사업단)에서 수행 중인 멤버카드 사업의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담당 부서를 조정하여 초기 개발 단계의 인력을 감축 운영
-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부서의 직위 조정

(2) 주요 내용 :

- 조직국 조직부에 멤버카드 회원 관리와 회원 확보를 위한 활동 업무 추가
- 행정관리실 건강관리담당관 직위 삭제 및 감사실 회계감사관 1명 증가
- 홍보실 방송 담당관을 보도 담당관으로 직위 변경
- 의전, 공보 담당관을 각각 의전, 공보부장으로 직위 변경

※정원 변동 : 총 95명 → 98명

증가	감소
조직부의 카드사업 담당관(3급)	총무부의 건강관리담당관(4급)
" 카드기금 담당관(4급)	
" 사무원(7~9급)	
감사실의 회계감사관(4급)	

• 제38차 기구 개편(2002.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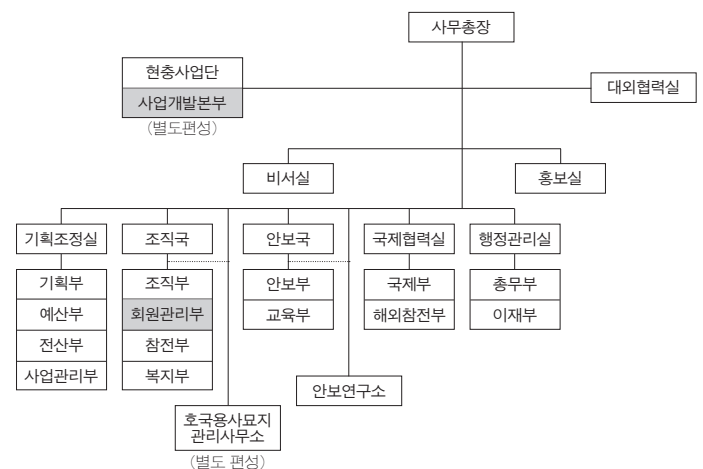
(1) 개편 사유

시·도회 복지·사업부장을 인가하여 시·도회 업무를 보강하고, 조직국의 회원 관리팀을 회원 관리 및 카드사업 전담부로 운영토록 회원관리부로 승격시키며, 직원의 소수 정예화 방침과 전산 사무 능률 향상에 따라 정원을 감소하고, 일부 직위 직급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며, 사업개발본부를 별도 편성하여 수익사업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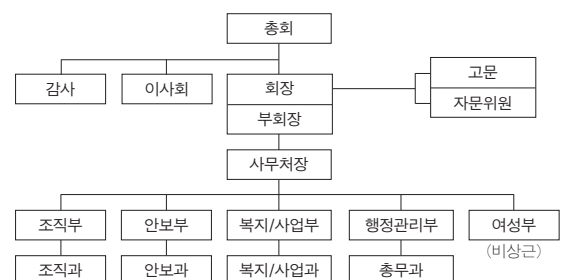
(2) 주요 내용

- 시·도회 복지·사업부장 인가(13개회)
 - 조직국 회원 관리부 편성(4명) : 조직부, 회원 관리부, 참전부, 복지부
 - 정원 98명에서 94명으로 감소(-4명)
 - 일부 직위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사무원을 담당으로 직위를 변경
 - 기능직(운전기사)을 행정 및 기사를 겸무하도록 직위 변경
 - 사업개발본부 신설, 별도 편성
- ※중전 개발사업본부는 용역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직영 사업으로 운용

본부 기구



시·도회 기구



• 제39차 기구 개편(2003.12.23)

(1) 개편 사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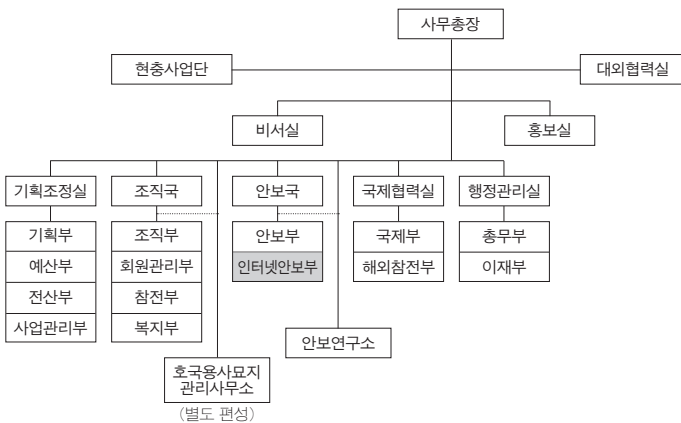
본부 정원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원 및 분장 업무 조정

제2편 테마별 역사

(2) 주요 내용 :

- 인터넷 안보부 신규 편성(5명)
- 안보연구소에 안보교육부를 흡수하여 운영(안보국장이 연구소장 겸무)
- 조직국에 향군청년단 운영 업무 추가
- 현충사업단을 정식 편제화(4명)
- 사업개발본부를 직영사업본부로 전환
- 감사실 회계 담당관(4급) → 민원 담당(7~9급)으로 조정
- 행정관리실 장비 담당관(4급) → 총무부로 조정
- 각부서 행정 담당(7~9급) → 업무 담당으로 직위 변경
- 부설기관 기구표 등은 이중 표기이므로 삭제
- 시·도회 및 지회 정원표의 조직부와 안보부의 부장(4급) → 3~4급으로 조정
- ※ 변경 후 정원 : 99명(현직제 94명+안보국 1명+현충사업단 4명)

본부 기구



• 제40차 기구 개편(2006.5.30)

(1) 개편 사유 :

본부 재정 및 정보화 추세를 감안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원 및 분장 업무 조정

(2) 주요 내용 :

△ 본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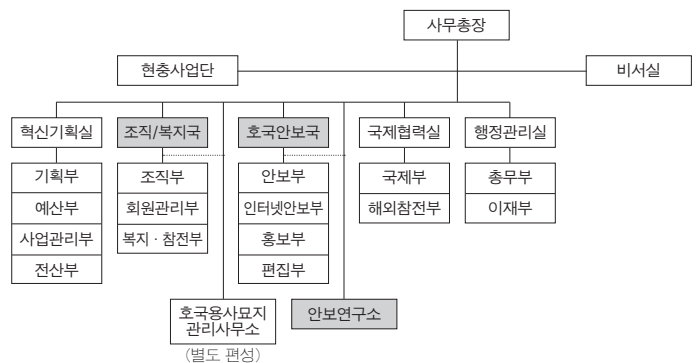
- 현 정원의 25% 감축(2008년까지)
- ※ 신규 채용 통제 및 정년자 복무 연장 금지
- 유사 업무부(서) 통합
- 안보국+홍보실 → 호국안보국
- 기획조정실+대외협력실 → 혁신기획실(혁신·대외협력관 추가)
- 조직국 → 조직지국(복지부, 참전부 통합)

△ 시·도회(2008년까지)

- 부장 2명 감축(4명→2명)

※ 신규 채용 통제 및 정년자 복무 연장 금지

본부 기구



※ 2국 7실, 1개 연구소, 1개 사업단 → 2국 5실, 1개 연구소, 1개 사업단

시·도회 기구

• 제41차 기구개편(2006.12.21)

(1) 개편 사유

향군안보복지대학원(가칭)이 설립되어 안보연구소의 분장 업무가 안보복지대학원과 중복됨에 따라 안보연구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직제 규정 제1장 제2조(부설기관) '안보연구소'를 삭제하며, 안보연구소의 분장 업무를 안보복지대학원으로 이관
- 본부 기구표 및 본부 정원표, 본부 직위표에 표기된 안보연구소 삭제

• 제42차 기구 개편(2007.3.22)

(1) 개편 사유 :

- 국립 영천·임실호국원 업무를 2007년 1월 1일부로 보훈처

로 이관함에 따라 규정 중 일부 내용을 삭제

- 국제협력실 업무 분장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
- 본부 부서장 중 행정·감사실장 직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

(2) 주요 내용 :

- 제7조(조직/복지국) 내용 변경
- ③항의 13 : ‘호국용사묘지 관리사무소 관리·운영 통제’ 삭제
- ⑦항의 10 : ‘호국용사묘지 관리사무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 ※ 본부 기구표에 표기된 ‘호국용사묘지 관리사무소’ 삭제
- 제10조(국제협력실) 내용 변경
- 한국전 50주년 기념행사 지원 → 한국전 관련 행사 지원
- 제11조, 제14조의 행정관리실장, 감사실장 직위를 2급 → 1~2급으로 변경

• 제43차 기구개편(2008.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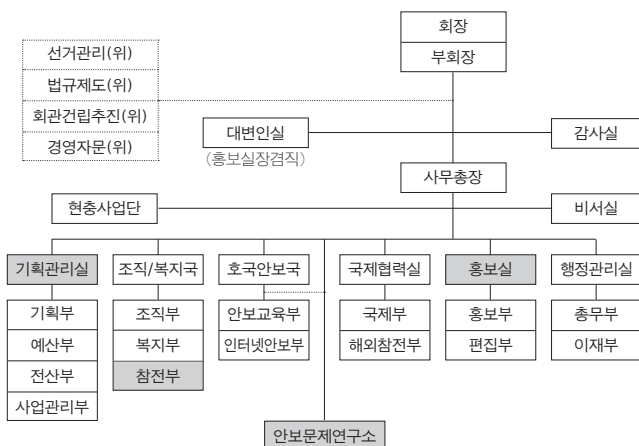
(1) 개편 사유 :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

(2) 주요 내용 :

- 혁신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변경
- 대변인실 및 홍보실 신설(호국안보국 홍보 기능 → 홍보실)
- 대변인은 홍보실장 겸직하며 회장 직속기구
- 안보문제연구소 신설(안보복지대학의 안보연구소 → 본부직제로 이관)
- 유사 업무 통합 및 조정
- 회원관리부를 폐지하고 회원관리 업무를 분할, 조직부·참전부 이관
- 참전부 신설(참전·친목단체+장성회원 관리)
- 안보부 → 안보교육부로 변경(안보부+교육 기능)
- 혁신·대외협력관 업무 비서실로 이관(혁신기획실 → 비서실)
- 홍보실장(1급) 및 민원감사관 편제 반영

본부 기구



• 제44차 기구 개편(2008.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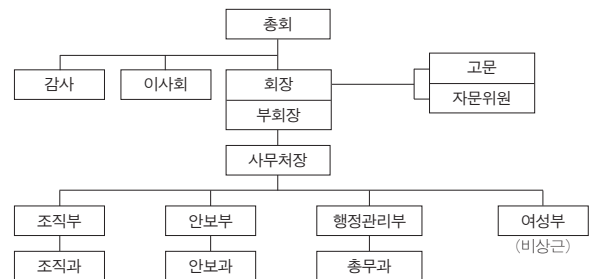
(1) 개편 사유 :

2005년 7월 보훈처 주도 하에 향군개혁 차원에서 혁신위원회를 운영하여, 2008년까지 감축하도록 한 본부 정원 및 시·도회 부장 정원을 2006년 5월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직제 규정 일부를 변경

(2) 주요 내용 :

- 본부 정원의 25% 감축 : 현행 정원 유지
- 시·도회 부장 1명 감축 : 의결안 시행(4명 → 3명) : 복지·사업부장을 감축하고, 복지·사업부 삭제

시·도회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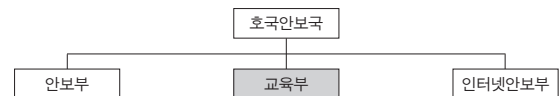
• 제45차 기구 개편(2009.3.13)

(1) 개편 사유 :

호국안보국에 교육부를 신설하여 21C 율곡포럼 및 강좌, 대국민 안보교육 등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 기능을 강화

(2) 주요 내용 :

호국안보국 안보교육부를 안보부와 교육부로 분리, 교육부 신설



• 제46차 기구개편(2010.3.19)

(1) 개편 사유 :

본부 직원의 직무 감사를 통하여 정원을 감축하고, 기획관리실의 사업관리부 및 안보문제연구소를 보강하며,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 부서 및 시·도회의 직위 및 분장 업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 본부 정원 7개 직위 감축(직무감사 결과) : 친목단체 담당관, 안보대응 담당관, 안보교수, 해외지회 담당관, 수송관리 담당관, 혁신·대외협력부장, 영상 담당

제2편 테마별 역사

- 사업관리부의 개발지원 담당관 1명 보강(6명 → 7명)
- 안보문제연구소 소장(1급) 정원 반영
- ※조정 후 본부 정원 총 98명 ⇒ 93명
- 혁신·대외협력부장 감축에 따른 분장업무 기획관리실로 이관
- 수익사업 보강을 위해 기획관리실 분장 업무에 산하업체의 경영계획 조정 통제 및 산하업체 간 사업 조정에 관한 업무 추가
- 인터넷안보부 취재기자 직급 조정(7~9급 → 5~6급)
- 홍보실의 홍보부, 편집부 명칭변경 및 분장 업무 조정 : 홍보부를 홍보기획부로, 편집부를 홍보운영부로 조정
- 시·도회 정원표의 조직 복식 보조요원 추가

- 제47차 기구 개편(2010.12.23)

- (1) 개편 사유 :

행정명령 제291호(2010.6.21)에 의거 2010년 7월 1일부로 신규 사업개발을 위하여 본부사업관리부를 연말까지 잠정적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바, 정식 편제에 반영하여 운용

- (2) 주요 내용 :

- 현 편제 사업관리부 7명(3급 2명, 4급 3명, 5-6급 1명, 7-9급 1명)을 사업관리부 4명(3급 1, 4급 2, 7-9급 1), 사업개발부 3명(3급 1, 4급 1, 5-6급 1)으로 분리

※ 현 편제 총 인원(93명)에는 변동 없음.

- 제48차 기구 개편(2011.12.22)

- (1) 개편 사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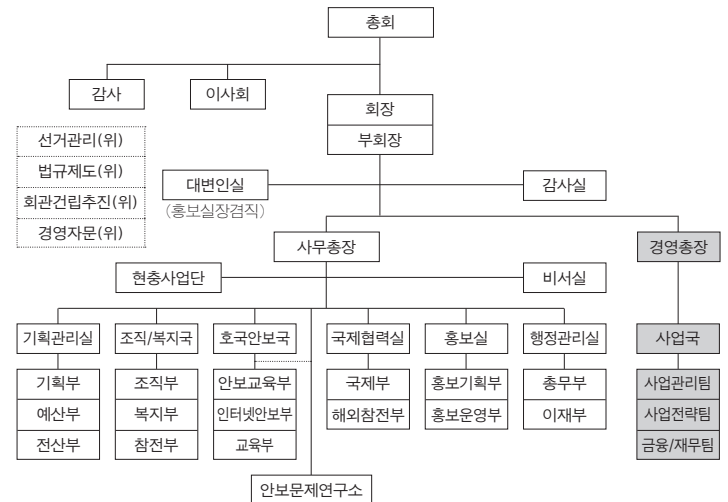
- 향군본부의 직제를 목적사업기구와 수익사업기구로 이원화 운영하여 전문성 증진
- 회장 직속으로 사무총장과 경영총장을 두어 목적사업 업무는 사무총장이 수익사업 업무는 경영총장이 수행
- 안보활동 및 해외지회 업무에 필수적 인원을 직제에 반영

- (2) 주요 내용

- 기획관리실에서 수행하던 수익사업업무를 경영총괄본부에서 수행
- 경영총괄본부에는 경영총장을, 예하의 사업국에는 사업국장을 두고, 사업국 소속으로 사업관리팀, 사업전략팀, 금융/재무팀 운영
- 제15조의2(사업국)을 신설하여, 사업관리팀, 사업전략팀, 금융/재무팀의 분장 업무를 명시
- 사업관리팀 : 산하업체 관리 및 통제 업무, 임직원 인사 업무 등

사업전략팀 : 수익사업 관련 제도·규정·정책 업무, 신규사업 개발 업무 등

금융/재무팀 : 산하업체의 금융업무 총괄, 총괄본부 행정지원 등



제49차 기구개편(201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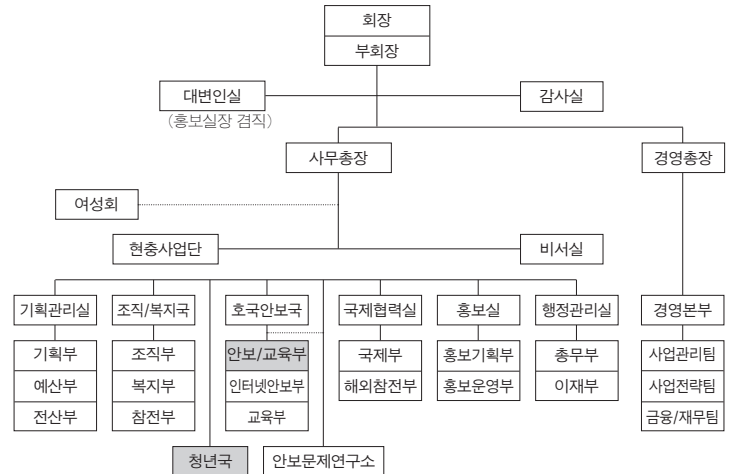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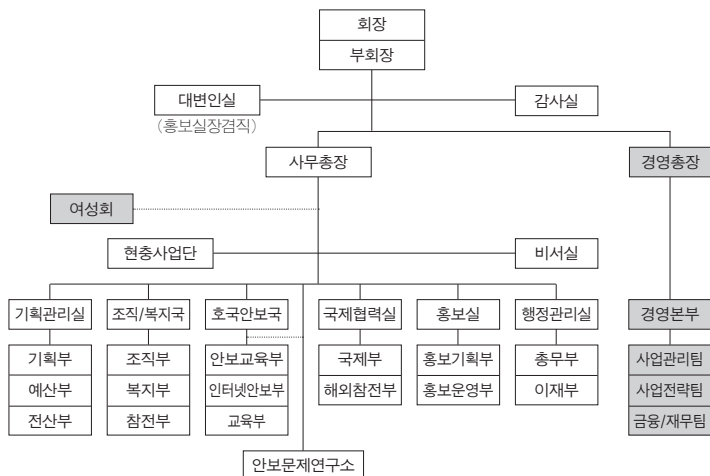
- (1) 개편 사유 :

- 교육문화사업본부에서 관장하던 ‘평생교육원’과 ‘국민안보 통일교육체형 학습장’ 업무가 목적 사업으로 전환되어 호국안보국에서 수행
- 경영총괄본부의 직제 및 직위 명칭을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진
- 각급회 기구표에 보조 조직인 여성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제 규정 별표에 표기

- (2) 주요 내용 :

- 제8조(호국안보국)의 분장 업무에 평생교육원 및 국민안보통일교육체험 학습장의 관리 업무를 삽입
- 제15조의2(경영총괄본부)의 사업국장을 경영본부장으로 변경, 사업전략팀의 분장 업무를 조정하며, 일부 직위의 명칭을 변경
- 각급회 기구표(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읍·면·동회)에 여성회를 표기
- 별표3-1, 3-2, 3-3, 3-4 를 신설하여 각급회별 여성회의 기구표를 추가

본부 기구



- 제50차 기구 개편(2012.7.19)

- (1) 개편 사유 :

향군개혁60위원회(2012. 4. 30 설치)에서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검토·의결한 본부 구조 조정 시행

- (2) 주요 내용 :

- 향군개혁60위원회의 제도 개선분과 개혁 과제로 본부 인력 감축 의결 : 현 직제인원(103명)의 10% 감축 목표로 미보직 포함하여 부서 인원 감축 13명(-12.6%)
- 안보활동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청년국 신설(3명) : 국장1, 담당관1, 담당1
- 조정 후 신 직제인원 93명으로 운영
- 호국안보국의 안보부와 교육부를 통합 : 제8조(호국안보국) ④항 안보부를 안보/교육부로 수정, 분장 업무 조정

- 제51차 기구 개편(2012.9.12)

- (1) 개편 사유 :

향군개혁60위원회(2012.4.30 설치)의 경영정상화분과에서 연구과제로 선정 후 검토·의결한 '본회와 직영사업체 간 직급 일원화'와 제도개선분과에서 검토·의결한 '본회 감사에 대한 감사실의 업무 협조'를 직제 규정에 반영

- (2) 주요 내용 :

- 본회의 부서장 중 직급이 1~2급으로 명시된 부서장 직급을 1급으로 상향 조정 : 행정관리실장(제11조), 비서실장(제12조), 청년국장(제15조의3, 신설)
- 본회와 직영사업체의 직위에 따른 직급을 1급~9급으로 통일하고, 직책 명을 담당관, 주무, 계장 등에서 차장 및 과장, 대리로 바꾸며, 국제협력실의 부 명칭을 해외협력부, 해외조 직부로 변경하고, 행정관리실, 감사실의 일부 직급과 호국안보국 일부 직책명 변경
- 본회 감사에 대한 감사실의 업무 협조를 위하여 제14조(감사실)에 분장 업무 추가